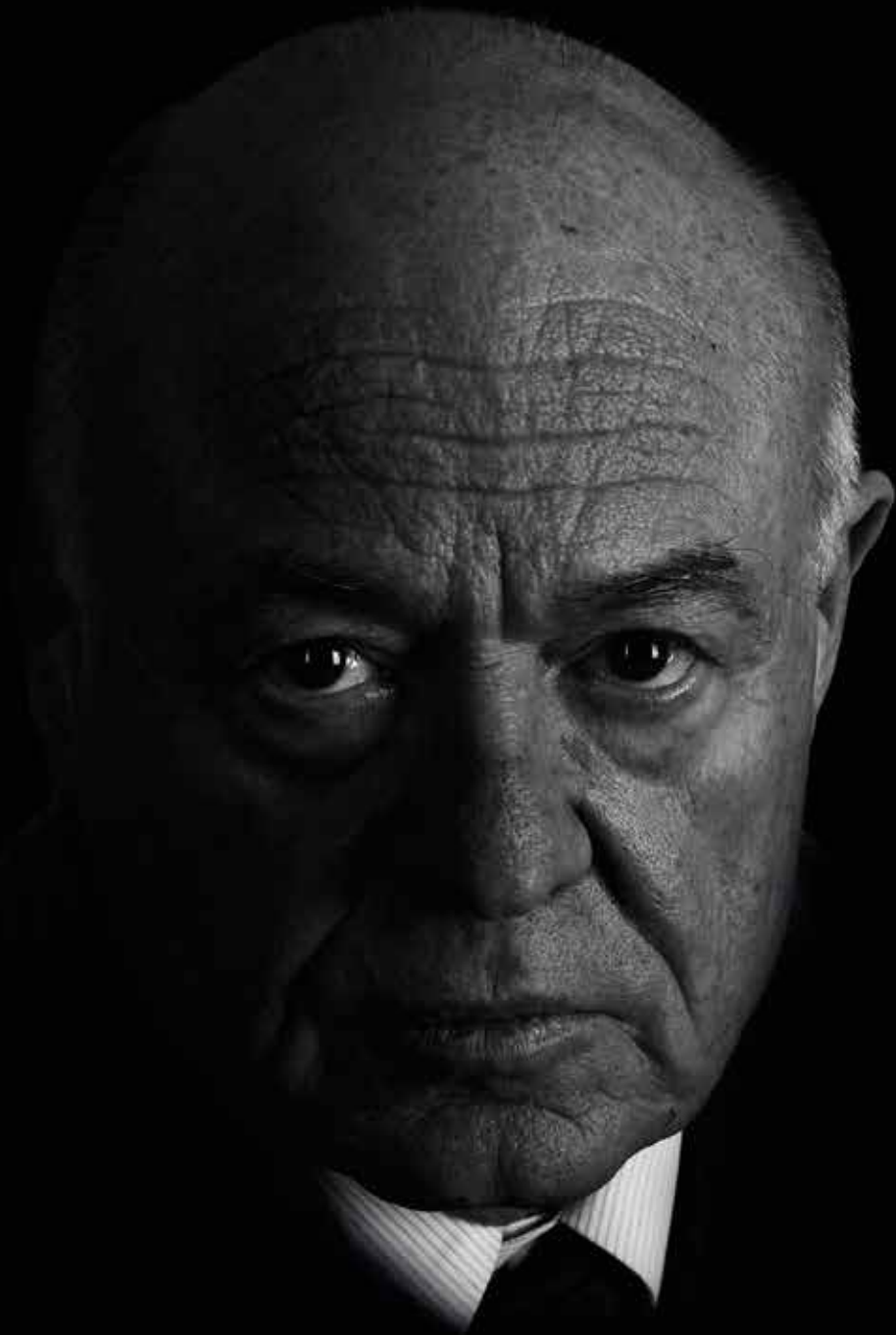




교수·박사 **BODO W. LAMBERTZ**

순수한 삶의 책

THE BOOK OF PURE LIFE

SIQT | Schweizer Institut
für Qualitäts-tests GmbH



Swiss most innovative midsize
companies 2026

Household & Consumer Goods

AWARD WINNER
INNOVATION PERFORMANCE

Swiss Intellectual Properties & Licensing AG

Study 01/26, Patent performance in the period
09/24–10/25, top 20%, wgl.ch/5467



책 순수한 삶의

순수한 삶의 책

사랑으로 충만한 삶의 길잡이

제사판 · 2026

APANI AS PURE AS NATURE INTENDED AG · Wilen bei Wollerau · 스위스

여전히 믿는 모든 이를 위하여,
가장 참된 사치는 함께하는 식탁,
정직한 한 잔, 진정한 음악 — 그리고 시간임을.



서문

학생이던 내게는 두 가지 사랑이 있었지만, 어느 쪽에도 쓸 돈이 없었다. 하나는 내가 자란 자연이었다. 자연은 겸허히 찾지만 한다면 이 세상 거의 모든 것에는 이미 완벽한 해답이 있음을 일찍부터 가르쳐 주었다. 다른 하나는 음악이었다. 꿈꾸던 시스템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직접 만들었다. 학생 방에서 빌린 공구를 들고 손가락을 데어 가며 밤마다 작업했다. 내가 만든 라우드스피커가 처음으로 단순한 소리가 아닌 존재감을 드러낸 그 날 밤, 나도 모르는 사이 APANI가 태어났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집은 얼핏 아무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 세계들을 품고 있다. 와인과 울, 올리브 오일과 라우드스피커, 커피와 화장품, 식탁과 시가. 그러나 다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 젊은 시절 품었던 질문은 여전히 같다. 순수한 것을 어떻게 손실도, 왜곡도, 타협도 없이 온전히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 답도 변함없다. 원형은 백 퍼센트 그대로, 부가치는 백 퍼센트 더한다. AS PURE AS NATURE INTENDED.

오랫동안 우리는 이 책을 바이블이라 불렀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정확해졌기에 새 이름을 붙였다. 바이블은 믿음을 요구하지만, 나는 어떤 믿음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책에 적힌 모든 것은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식탁을 차리고, 정직한 한 병을 열고, 침묵하며 들을 가치가 있는 음악을 틀고, 그 침묵을 깨뜨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된다. 나는 알프스와 카리브해에서 보낸 오십 년과 수백 번의 저녁을 통해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았다. 서로를 대하는 공동의 방식 속에서 실천된 애정과 존중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자란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공동체와 신의, 존중과 존경을 낳는다.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살아 있음의 감각이다.

이것은 마케팅이 아니다. 이것은 내 삶이며,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책은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라는 초대다. 머리가 아니라 모든 감각으로, 자신의 식탁에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날마다 자신에게 바라는 것을 당신에게도 바란다. 온전한 현존, 향유, 그리고 곁에 머무는 사람들.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Wilen bei Wollerau, 2026년 여름

교수·박사 Bodo W. Lambertz
창립자 & 발명가 · APANI®
— AS PURE AS NATURE INTENDED®

목차

프롤로그 — 이 책에 새 이름을 붙인 이유	9
제I권 — 기원	10
한 세대의 각성	10
창립자의 두 열정	11
이름과 법칙	12
브랜드에서 삶의 방식으로	12
제II권 — 철학	13
중심에 선 인간	13
첫 번째 기둥 — 연결	14
두 번째 기둥 — 성장	15
세 번째 기둥 — 인정	15
네 번째 기둥 — 신의	16
다섯 번째 기둥 — 명료함	17
APANI 사고법	17
APANI 심리학 — 순수함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18
APANI의 신념 — 교리 없는 고백	19
제삼권 — 침묵의 소리	20
모든 음악의 어머니, 침묵	20
듣는 법을 배우다	21
APANI Audiophile — 온전히 완성된 첫 장	22
Music Transformer	22
단지 다른 것이 아닌 더 나은 것 — APANI Audiophile 평가 기준	23
QEVIKO — 길을 밝히는 이정표	24
리스닝 룸 — 현대의 화룻가	24
음악이 삶에 하는 일	25
 제IV권 — APANI의 세계	 26
식탁 — 인간이 인간이 되는 곳	26

APANI Meat — 동물과 맺은 약속.....	27
APANI Fish — 깨끗한 물이 준 선물	28
APANI Vegetables & Herbs — 기억 속 정원.....	29
APANI Extra Virgin Olive Oil — 녹색의 황금	30
APANI Cheese — 우유, 시간과 숙련.....	31
APANI Bread & Pasta — 곡물 문명	31
APANI Rice — 물의 인내.....	32
APANI Salt & Pepper — 처음과 끝의 손길.....	33
APANI Coffee & Tea — 두 가지 명상	33
APANI Wine — 인내의 걸작.....	34
APANI 카리브해 — 태양의 두 번째 고향.....	36
시가 — 장인정신, 잎과 시간	36
APANI 텍스타일 — 두 번째 피부.....	37
APANI 코스메틱 — 돌봄의 의식	39
불의 시간 — Genuss.....	41
제V권 — 삶을 이끄는 길	42
아침 — 하루를 세우는 법	42
일과 장인정신 — 잘 해낸다는 존엄	43
우정 — 스스로 선택한 가족	44
사랑과 동반자 관계 — 가장 긴 이중주	44
가족과 세대를 잇는 식탁	45
환대 — 열린 문.....	46
고독 — 자기 자신과 함께하기	47
몸 — 최초의 악기.....	48
소유와 참된 부 — 소유당하지 않고 소유하기	49
 향연 — 일상을 넘어서는 날들	 50
역경 — 거친 날씨 속의 순수한 삶	50

자연과 계절 — 한 해 안에서 살기	51
나이 듦 — 늦은 수확	52
제품에서 실천으로 — 비밀을 분명히 말하다	53
호감과 존중에서 사랑으로	53
사랑이 낳는 것	54
사랑으로 충만한	55
에필로그 — 초대	56

프롤로그 — 이 책에 새 이름을 붙인 이유

오랫동안 당신이 들고 있는 이 책은 APANI 바이블이라 불렸다. 그 이름은 제 역할을 다했다. APANI의 기원과 신념, 제품과 언어, 품격까지 APANI의 모든 것을 한 권에 기록한 곳이었다. 브랜드와 함께 일하고, 브랜드를 만들어 가거나, 그저 브랜드를 사랑하는 모두가 같은 샘에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였다. 와인과 울, 올리브 오일과 라우드스피커, 커피와 화장품을 아우르는 기업에는 이런 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부서의 집합으로 흩어지고 만다. 바이블은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그러나 바이블은 믿음에 관한 책이고, APANI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다. APANI가 요구하는 것은 훨씬 단순하면서도 훨씬 어렵다. 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맛보고, 듣고, 만지고, 나누는 것. 자신의 감각으로 순수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조용히, 영원히 바꾸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믿음은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은 날마다, 식사마다, 저녁마다 온전히 살아 내야 한다. 이 책은 그 긴 여정을 위해 쓰였다.

그래서 이번 판에는 새 이름이 붙었다. 순수한 삶의 책 — 순수한 삶의 책. 이제 이 책은 한 브랜드의 안내서에 머물지 않는다. 하나의 삶의 방식을 그려 내며, 책이 할 수 있는 한 삶 자체를 안내한다. APANI가 시작된 곳, 더 진실한 삶을 갈망한 한 세대에서 출발한다. 그 갈망에서 자라난 철학을 따라가고, 철학이 물질의 형상을 얻은 세계들을 지난다. 식탁과 포도나무, 두 번째 피부, 돌봄의 의식, 불의 시간, 음악이 현존이 되는 방. 그리고 모든 철학이 인쇄된 종이의 가치를 지니려면 마침내 닿아야 할 곳에서 끝난다. 아침과 노동의 하루, 우정과 사랑, 환대와 역경, 나이 듦과 우리가 남기는 것 속에서 드러나는 한 인간의 삶의 태도다.

이 책 전체의 명제는 처음부터 밝힐 수 있다.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APANI의 삶의 방식은 제품을 사용하는 가운데 표현되며, 그 일상의 사용을 통해 삶의 철학이 된다. 인내로 여는 모든 병, 정직하게 차리는 모든 식사, 세심히 걸치는 모든 섬유, 참으로 귀 기울이는 모든 음악의 저녁은 위대한 덕목을 익히는 작은 연습이다. 그 연습은 쌓인다. 애정과 존중에 뿌리를 두고, 서로를 대하는 공동의 방식으로 실천될 때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무르익는다. 그렇게 실천된 사랑은 분명한 자녀들을 낳는다. 공동체와 신의, 존중과 존경, 그리고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살아 있음의 감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삶의 감각이다.

APANI의 삶의 방식은 충만하다. 가장 진실하고 감상에 치우치지 않은 의미에서, 사랑으로 가득하다. 이어지는 이백 쪽은 오직 그 한 문장을 인내로 펼쳐 보이는 과정이다.

이 책을 천천히 읽으라. 천천히 쓰인 책이다. 더 좋은 방법은 읽기만 하지 않는 것이다. 읽으며 식탁을 차리고, 한 병을 열고, 침묵하며 들을 가치가 있는 음악을 틀라. 이 책은 선언보다 실천을 믿으며, 훌륭히 감상되기보다 서툴게라도 살아지기를 바란다.

제권 — 기원

한 세대의 각성

한때 — 이는 동화의 시작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실이다 — 제이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의 중심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부모 세대는 규율과 희생으로 산산이 부서진 대륙을 재건했고, 자녀들은 감사했다. 그러나 감사와 동의는 같지 않다. 선대가 잔해 위에 세운 세계를 바라보며 젊은이들은 번영 아래 숨은 불편한 진실을 보았다. 모든 것을 생산하는 법은 배웠으나 거의 아무것도 흥미하지 못하는 사회, 성공을 생산량과 매출로 재는 사회, 자연을 창고로, 동물을 기계로, 음식을 연료로, 인간의 삶에서 유일하게 대체할 수 없는 소유인 시간을 줄여야 할 비용으로 취급하는 사회였다.

1968년 학생운동의 정신과 플라워 파워 세대의 이상은 변화를 향한 열망을 불붙였다. 진실성, 자연에 대한 존중, 인간 사이의 깊은 연결 위에 세워진 사회를 향한 갈망이었다. 첫 시도가 으레 그렇듯 그 세대가 시도한 많은 것은 실패했다.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구호는 낡았으며, 예언자 중 일부는 결국 장사꾼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들이 던진 질문은 전혀 낡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을 전후 시대의 절박함으로 다시 물었기 때문이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대지에 무엇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서로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모든 진정한 것을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공허한 것으로 바꾸는 일이 정말 필요하며, 그것이 진보의 대가인가?

바로 이 비옥한 토양에 APANI의 씨앗이 뿌려졌다. 당시의 젊고 지적인 이들은 자연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시대를 지배하던 무분별한 물질주의와 끝없는 착취, 자원에 대한 무심한 낭비를 거부했다. 대안적 개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공존의 형태를 탐구했다. 나눔과 진실성, 신의와 사랑이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되는, 인간의 참된 본성을 비추는 사회를 갈망했다. 대부분은 그 갈망을 가슴에 품은 채 평범한 직업의 길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도 갈망은 막연한 불편함과 온전히 만족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살아남았다. 소수에게는 하나의 계획으로 남았다.

창립자의 두 열정

모든 브랜드에는 공식 역사와 진짜 역사가 있다. APANI의 공식 역사는 제품에서 시작하지만, 진짜 역사는 학생 방의 한 젊은이와 주변 모두가 무관하다고 여긴 두 열정에서 시작한다. 그는 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외투를 걸친 하나의 열정이었다.

첫 번째는 자연이었다. 풍경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스승으로서의 자연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늦게야 깨닫거나 끝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일찍 이해했다. 수백만 년의 진화 속에서 자연은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고심하는 문제 대부분을 상상할 수 없는 우아함으로 이미 해결했다. 따뜻하게 하면서 식혀 주는 섬유, 포도나무를 먹이고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게 하는 토양, 빛을 생명으로 바꾸는 잎. 그런 정신에 '자연적'은 결코 '원시적'의 동의어가 아니었다. '완성된'이라는 뜻이었다.

두 번째 열정은 음악이었다. 여기서 젊은이는 APANI의 미래 전체를 축소해 담은 듯한, 그다운 일을 했다. 단순히 소비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같은 세대가 이상을 중심으로 모일 때, 그는 그에 못지않게 살아 있는 것 곁에 머물렀다. 자신의 손에서 형상을 얻는 라우드스피커, 녹음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되살리려 밤마다 직접 배선한 앰프였다. 그는 부탁하고, 빌리고, 공부했다. 데인 손가락과 실패한 회로를 거치며 전자공학을 힘겹게 배웠다. 그리고 그 작은 방에 음악이 서서히 도착하기 시작했다. 재생이 아니라 현존으로.

중요한 것은 결코 음량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목소리를 불린 그대로, 현을 활로 그은 그대로, 음과 음 사이 침묵 속 연주자의 숨결까지 듣는 일이었다. 그가 만든 첫 스피커부터 질문은 훗날 브랜드 전체를 규정할 바로 그것이었다. 포도 한 알, 양모 한 장, 녹음 한 편, 한순간처럼 순수한 것을 어떻게 지성과 장인의 숨씨로 왜곡도 타협도 없이 온전히, 자연이 의도한 그대로 우리에게 닿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음악은 APANI가 야심을 키운 뒤 덧붙인 늦은 장이 아니다. 첫 장이다. 철학은 여기서 태어났다. 순수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것이며, 원형과 인간 사이에는 수많은 손과 선택의 사슬이 놓여 있고, 그 사슬의 모든 고리는 원형을 존중하거나 배반한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학생 방에서 납땀하던 젊은이는 언젠가 포도밭과 주방, 직조 공장과 콘서트급 리스닝 룸을 함께 지배할 법칙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름과 법칙

AS PURE AS NATURE INTENDED. 네 단어 — 처음에는 개인의 신념에 지나지 않았으나, 훗날 이 집이 만드는 모든 것에 새겨진 약속이 되었다. APANI라는 이름은 이 문장의 머리글자이자 맹세다. 이 말이 실제로 무엇을 선언하는지 잠시 살펴 가치 있다.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타협과 허용오차,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언어인 '가능한 한 순수하게'라 하지 않는다. 이 시대의 말하지 않는 좌우명인 '수익이 나는 만큼 순수하게'라고도 하지 않는다. '자연이 의도한 그대로'라고 말함으로써 시장이 아니라 자연을 판단의 기준으로 세운다. 포도는 와인이 어떤 맛이어야 하는지 안다. 양모는 옷이 어떤 감촉이어야 하는지 안다. 녹음은 방이 어떻게 울려야 하는지 안다. 우리의 임무는 발명이 아니라 충실함이다. 자연의 의도와 그것을 경험하는 당신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와 불순, 모든 나태를 걷어 내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APANI 자연법칙이라 부르는 원리가 나온다. 이 책의 모든 장은 그 적용일 뿐이므로 시작점에서 정식으로 밝힐 가치가 있다. 원형은 백 퍼센트 그대로, 부가가치는 백 퍼센트 더한다. 자연의 선물은 아무것도 잃어서는 안 된다. 포도의 맛도, 울의 온기도, 두 음 사이 가수의 숨결도. 동시에 경험의 모든 것은 지식과 정밀함, 헌신과 대상 자체를 향한 사랑으로 한층 높아져야 한다. 순수만으로는 단지 절제가 되고, 세련만으로는 인위에 그친다. APANI는 둘의 결합이다. 손대지 않은 원형을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지적인 장인정신으로 최고의 표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법칙은 이 집을 처음 찾은 이들이 품는 의문을 풀어 준다. 쇠고기와 라우드스피커, 올리브 오일과 메리노 울, 커피와 화장품, 와인과 레퍼런스급 음악 시스템이 어떻게 하나의 제품군에 함께할 수 있는가? 답은 그것들이 포트폴리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질문에 서로 다른 언어로 건넨 하나의 답이다. 어떤 APANI 제품이든 손에 들고 맛보고, 입고, 들어 보라. 당신이 진 것은 같은 신념이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진실한 것이며, 더 진실한 것을 날마다 사용하면 사람도 조용히 더 진실해진다는 신념이다.

브랜드에서 삶의 방식으로

회사는 제품을 팔고, 브랜드는 의미를 판다. APANI는 첫날부터 그보다 더 드문 일을 시도해 왔다. 하나의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그것을 그저 감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하게 할 일상의 도구를 사람들의 손에 건네는 일이다.

이것이 첫 번째 발견만큼 중요한 창립자의 두 번째 발견이다. 이상으로만 남은 이상은 일찍 죽는다. 1968년 세대가 이를 증명했다. 사랑과 공동체, 자연에 관해 그토록 많은 말이 쏟아진 적은 없었지만, 그토록 많은 말이 사라진 일도 드물었다. 살아남는 것은 선언한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것이다. 실천에는 사물과 계기, 의식이 필요하다. 서두를 수 없는 와인에는 느낌에 대한 신념이 살아남는다. 숨긴 것이 없는 음식에는 정직에 대한 신념이 살아남는다. 방 안의 누구도 다른 곳에 있고 싶지 않을 만큼 충실히 재현된 음악에는 현존에 대한 신념이 살아남는다. APANI의 제품은 신념에 몸을 부여한 것이다. 사람의 손에서 다른 손으로 건네지고, 병에서 잔으로 따라지며, 침묵에서 리스닝 룸으로 연주되어 — 삶이 된다. 이것이 진실하게 들려주는 기원이다. 사업 계획이 아니라 갈망, 시장의 빈틈이 아니라 한 세대의 질문, 발명가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임을 깨달은 젊은이의 두 사랑이었다. 이 책에서 이어질 모든 것 — 철학과 세계들, 삶의 길잡이 — 은 그 뿌리에서 자랐고 지금도 그 수액을 받아들인다. AS PURE AS NATURE INTENDED. 그것은 결코 구호가 아니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제II권 — 철학

중심에 선 인간

모든 철학은 인간에 대한 하나의 상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부분의 현대 제도에는 소비자, 사용자, 자원이라는 숨은 인간상이 있다. APANI의 인간상은 더 오래되고 더 진실하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회적 존재다. 자연은 우리에게 소통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그것을 쓰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단지 나란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함께하도록 태어났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깊이 듣고, 가진 것과 자신이 누구인지 나누도록 만들어졌다. 가장 자유롭고 기쁘게 소통하는 이들이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채 모인 아이들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식탁이나 정원, 작은 경이 앞의 아이들을 보라. 삶이 경계심을 가르치기 전 인간 본연의 설계를 보여 준다. APANI가 만드는 모든 것은 결국 어른 안에서 그 설계를 되찾기 위한 것이다. 경계하던 이들이 함께 다시 마음을 여는 순간을 위해.

그런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이 철학 전체의 출발 장면이기 때문이다. 정직한 음식으로 식탁을 차린다.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한 병을 연다. 음악이 흐른다.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덮지 않고 채울 만큼 충실하게 울린다. 그러면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어깨의 힘이 풀리고, 휴대전화는 잊힌다. 문장은 길어지고 더 진실해진다. 누군가는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좀처럼 받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귀 기울인다. 두 시간이 이십 분처럼 흐르고, 아무 거래도 없었지만 모두가 올 때보다 풍요롭게 돌아간다. 그 저녁은 오락이 아니었다. 알맞은 조건 속에서 본래의 일을 하는 인간의 본성이었다. APANI는 그 조건을 믿을 수 있게, 아름답게, 날마다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현대의 삶은 엄청난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사람을 고립시킨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이가 홀로 살고, 홀로 먹으며, 무엇보다 기묘하게도 홀로 듣는다. 삶을 가속한다. 식사는 연료가 되고, 대화는 메시지가 되며, 음악은 배경이 된다. 삶을 추상화한다. 우리는 모든 것의 가격과 화면 속 이미지는 알지만, 거의 아무 것의 맛과 무게, 향도 모른다. 이는 누구의 악의적 계획도 아니다. 편의가 빛은 표류일 뿐이다. 그러나 표류가 운명은 아니다. APANI는 의식적이고 기쁜 역류다. 더 느리고, 더 순수하며, 더 가까운 방향이다. 현대 세계로부터의 후퇴가 아니다. 이 집은 엔지니어의 사랑으로 기술과 측정, 진보를 사랑한다. 다만 그 모든 진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결정한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함께하는 식탁과 잔, 음악과 삶을 위한 것이다. 현존에 봉사하는 기술은 문명이고, 현존을 대신하는 기술은 전원만 연결된 소음에 불과하다.

첫 번째 기둥 — 연결

다섯 가지 가치가 APANI 철학을 떠받친다. 장식이 아니라 하중을 받는 벽이다. 하나만 빠도 집은 무너진다. 첫째이자 가장 깊은 가치는 연결 — Verbundenheit — 이다. 단순한 접촉이나 관계를 넘어, 어떤 것과 서로 짜여 그 운명과 나의 운명이 더는 나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독일어다.

자연과의 연결이 먼저다. 다른 모든 것이 그 위에 서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모든 제품은 토양과 포도나무, 동물과 잎과 나무로부터 살아 있는 세계를 빌린 것이다. 빌린 자에게는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근원을 더 풍요롭게 하거나 적어도 온전히 남기는 방식으로만 취한다. 초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방목하고, 물이 생명을 이어 갈 만큼 절제해 어획하며, 토양을 파헤치지 않고 먹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동물에게서 섬유를 얻는다. 이는 감상도 마케팅도 아니다. 백 년 뒤에도 이곳에서 뛰어난 일을 하려는 이라면 마땅히 따를 기본 논리다. 자연은 APANI의 공급자가 아니다. 선임 파트너이며, 그 조건은 타협할 수 없다.

사람과의 연결은 두 번째 원이다. 우리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재배자와 장인, 국경과 세월을 넘어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 APANI 한 병이 열리는 모든 식탁의 손님과 이어진다. 자신과의 연결은 세 번째이자 가장 잊힌 원이다. 자신의 감각과 몸, 기쁨을 느낄 능력과의 연결이다. 더는 맛보지 못하고, 참으로 듣지 못하며, 살아 있는 섬유와 죽은 섬유의 차이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네트워크도 복원할 수 없는 더 근원적인 연결을 잃은 것이다. APANI의 삶은 사람에게 감각을 되돌려 주는 데서 시작한다. 감각을 통해 자기 자신도 되찾게 한다.

두 번째 기둥 — 성장

자연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작게 시작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참나무는 자신이 도토리였음을 사과하지 않는다. 성장은 두 번째 기둥이며, 바깥과 안이라는 두 얼굴을 지닌다.

바깥의 성장은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이 인내로 무르익는 과정이다. 첫 온전한 수확까지 여러 해가 필요하고 최고의 결실까지 수십 년을 기다리는 포도나무, 조금만 미각이라면 이미 마셨을 때에도 어둠 속에서 계속 깊어지는 와인, 앞선 세대의 어깨 위에 선 엔지니어들이 대를 이어 정련한 기술, 계약에서 신뢰로, 다시 우정으로 깊어지는 동반자 관계가 그러하다. APANI는 그 성숙을 살아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을 심는다. 이를 희생이 아니라 진지함의 정의로 여긴다. 자신의 생애 안에서만 일하는 이는 그저 분주할 뿐이며, 그 너머를 위해 일하는 이가 비로소 무언가를 세운다.

안의 성장은 APANI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관한 것이며, 둘 가운데 더 중요하다. 감각은 교육될 수 있다. 이는 인간에 관한 가장 희망적인 사실 중 하나이며 서도 가장 활용되지 않는 사실이다. 오늘 그저 '와인'만 맛보는 미각도 한 병씩 주의 깊게 마시며 언덕과 해, 양조자의 손길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오늘 그저 '음악'만 듣는 귀도 녹음이 이루어진 공간과 악구 직전의 숨, 악기의 나무결을 들을 수 있다. 손은 직물을, 눈은 빛을, 마음은 — 이것이 나머지 모든 것의 목적이다 — 사람을 배울 수 있다. 감각을 다듬는 일은 인격을 다듬는 훈련장이다. 둘 다 거침을 주의 깊음으로 천천히 바꾸는 과정이다. APANI의 삶은 되어 감의 길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지 않고 더해지는 유일한 사치를 약속한다. 내년의 당신은 오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아볼 것이다.

세 번째 기둥 — 인정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보고, 본 것을 존중하는 일이다. 오늘날 가장 굶주린 가치이기도 하다. 관심은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백만장자처럼 탕진하고, 결의 사람들은 빈손으로 남겨 둔다.

APANI는 아래로, 밖으로, 안으로 인정을 실천한다. 아래로는 모든 과정의 손길을 향한다. 일찍 일어나 가축을 좋은 풀밭에 내놓는 농부, 어느 올리브가 익었는지 아는 수확자, 보이지 않는 술기를 자신의 서명으로 남기는 재봉사, 십 년의 축적을 라우드스피커의 힘들이지 않은 진실 속에 감추는 엔지니어가 그들이다. 럭셔리 브랜드는 '

장인정신'이라는 말을 사랑하면서 장인을 잇는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만드는 이가 모든 것의 근원이기에 이름을 밝히고, 감사를 전하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밖으로는 동반자와 손님을 향한다. APANI의 찬사는 결코 아침이 아니다. 아침은 위조된 인정이며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러나 마땅한 찬사는 온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건넨다. 안으로는 작업 자체를 향한다. 낮선 이의 가차 없는 눈으로 자신의 제품을 바라보고, 어떤 고객도 알아채지 못할 결함을 발견해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잡는 규율이다.

일상에서 인정은 가장 값싸면서도 가장 드문 선물이다. 누군가 차린 식사, 감춘 수고, 애써 이론 발전을 알아보는 일이다. APANI의 식탁은 알아봄을 배우는 학교다. 와인메이커가 이론 것을 맛보는 법을 익힌 손님은 자신도 모르게 식탁에 앉은 모든 이가 이론 것을 보는 법을 배운다. 와인에 베풀 인정은 사람에게 베푸는 인정으로 이어진다. 진정으로 보인다고 느끼는 사람은 당신을 위해 불길 속도 지나갈 것이다. 이는 리더십의 기법이 아니다.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중력이다.

네 번째 기둥 — 신의

신의는 기억을 지닌 사랑이다. 어제의 약속이 오늘의 유혹을 다스리게 하며 시간 자체를 이어 주는 가치다. 또한 APANI 가족의 모든 구조가 기대는 기둥이다. 이 집의 모든 일에는 세월이 필요하고, 낮선 이들과는 그 세월을 건널 수 없기 때문이다.

APANI는 뒤쫓지 않고 동행한다. 우리의 생산자는 수익률 몇 푼을 위해 바꾸는 공급자가 아니다. 좋은 해에는 수확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해에는 결을 지킨 가족이다. 세계 곳곳의 동반자들은 이 집에서 나눈 악수가 시장이 변해도 효력을 잃지 않음을 안다. 장인들은 우리 작업장에서 나이 들고, 그들의 자녀는 같은 작업대에서 배운다. 이는 상업적 순진함이 아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오히려 반대를 증명했다. 신의는 지금껏 고안된 가장 수익성 높은 전략이다. 다만 분기 단위의 사고로는 셀 수 없는 화폐로 보상할 뿐이다. 진실을 말해 주는 동반자, 감시가 필요 없는 품질, 복리로 쌓이는 신뢰가 그 보상이다. APANI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신의는 삶을 가르치는 큰 기준이다. 지인과 친구, 거래와 관계, 한철과 수십 년을 나눈다. 신의 있는 사람은 결코 반대하지 않는 이가 아니다. 정직 없는 신의는 굴종일 뿐이다. 그는 울타리 안에서 이견을 말하고 밖에서는 지키며, 다툼 뒤에도 돌아온다. 친구가 힘겨울 때 그가 빛났던 모든 세월을 기억한다. 선택이 무한한 세상에서 신의란 최적화를 멈추고 소속되기로 하는 낮설고도 해방적인 결정이다. APANI 가족이 된 이는 가족이 자신을 잊지 않음을 알게 된다. 우리도 그저 같은 긴 기억을 바란다.

다섯 번째 기둥 — 명료함

물질의 순수함은 생각과 말의 순수함을 요구한다. 명료함은 다섯 번째 기둥이자 앞선 네 기둥의 수호자다. 연결과 성장, 인정과 신의는 모두 안개 속에서 죽는다. 말하지 않은 원망, 모호한 약속, 아침 섞인 회피, 오독하도록 작성된 계약 속에서 사라진다.

제품에서 명료함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벨은 진실을 말하고, 원재료 목록은 짧으며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측정값은 공개되고, 표시된 가격이 곧 가격이다. APANI 제품은 정직한 증인처럼 질문받을 수 있다.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이 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도 압박에 따라 답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주장하는 바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오디오 제품에 측정 가능한 독자 기준을 세웠다. 다른 이들이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는 확인을 청한다. 질문을 두려워하는 집은 이미 답을 내놓은 셈이다. 관계에서 명료함은 뜻한 바를 그대로 말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며,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뜻이다. 어려운 이야기는 일찍, 직접, 온기 있게 전한다. 말하지 않은 채 번지는 느린 독이 솔직한 다툼보다 더 많은 동업과 결혼, 우정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명료함은 가혹함이 아니다. 가혹함은 대개 목소리만 큰 비겁함이다. 참된 명료함은 존중의 한 형태다. 상대가 진실을 감당할 만큼 강하며, 진실을 들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대한다. APANI의 식탁에서는 가장 명료한 말과 가장 따뜻한 어조가 와인과 식사처럼 함께 놓인다. 손님은 둘이 애초부터 반대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APANI 사고법

가치가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지 말한다면, 사고는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말한다. APANI의 사고에는 이 집의 모든 분야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있으며, 누구나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일이 시작되는 곳, 원형에서 출발한다. 포도, 양모, 잎, 동물, 녹음이 그것이다. 첫 질문은 결코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미 여기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온전히 도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이다. 겸손하게 들리지만 실은 지극히 야심찬 질문이다. 온전히 도착하는 것만큼 어려운 여정은 없기 때문이다. 포도밭과 잔 사이, 마이크와 귀 사이에는 원형이 훼손될 수 있는 수많은 단계가 놓인다. 관습적 산업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그것을 줄이며 그 손실을 '효율'이라 부른다. APANI의 사고는 그 손실을 체계적으로 거부한다. 우리는 생산이 아니라 변환을 말한다. 원형은 상태만 바뀔 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APANI 사고의 두 번째 특징은 두 가지 기질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대상에는 타협하지 않고, 사람에게에는 너그럽다. 본질과 진실, 장인정신에는 협상이 없다. 고객이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 결함은 결함이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은 파산보다 더 많은 위대한 집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 엄격함은 결코 사람을 향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에는 온기와 인내로 다가가며 선의를 전제로 한다. 오직 작업만 가차 없이 판단한다. 제품에는 관대하고 사람에게 가혹한 집은 평범함과 불행을 똑같이 낳는다. APANI의 작업장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하며, 둘은 서로 이어져 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이토록 높은 기준을 감당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시간의 길이다. APANI는 분기가 아니라 세대로 생각한다. 손주들이 최고의 와인을 마실 포도나무를 심는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상속을 위해 라우드스피커를 만든다. 모든 서명자보다 오래 지속될 동반자 계약을 쓴다. 이는 낭만주의가 아니라 시간에 적용한 공학이다. 짧은 사고는 토대를 희생해 눈에 보이는 것을 최적화한다. 긴 사고는 복리로 깊어지는 토대를 얻기 위해 눈앞의 진전을 늦추는 일을 받아들인다. 대성당과 포도밭, 과학과 가족처럼 인간이 만든 모든 참으로 위대한 것은 긴 사고에서 태어났다. APANI는 그 법칙이 달라졌다는 허상을 거부할 뿐이다.

APANI 심리학 — 순수함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것은 왜 작동하는가? 와인과 식물, 라우드스피커의 품질이 어떻게 인격의 품질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가? 답은 현대 세계는 잊었지만 모든 장인이 아는 단순한 심리적 진실에 있다. 우리는 되풀이해 하는 것이 되며, 매일 곁에 둔 사물이 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한다. 사물은 중립적이지 않다. 저마다 하나의 초대를 품는다. 패스트푸드는 서두름을, 일회용품은 무심함을, 배경음악은 부채를 권한다. 거친 삶으로의 초대 속에서 살면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도 거칠어진다. 이는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진 방식이다. 결국 환경이 이긴다.

APANI의 모든 전략은 그 법칙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바꾸는 데 기반한다. 모든 APANI 제품은 온전한 심리적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하나의 덕목을 권하도록 설계된다. 천천히 자신을 드러내는 와인은 인내를 권한다. 정직한 재료로 만든 식사는 감사와 대화를 권한다. 살아 있는 섬유의 옷은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진실을 재현하는 음악 시스템은 현존을 권한다. 참되고 나뉘지 않은 현존, 현대인의 정신에서 가장 드문 상태다. 이 초대를 날마다 받아들이면 실천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인격이 된다. 사람은 더 인내하고, 더 감사하며, 더 온전히 머물고, 더 세심해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것을 요청하는 사물들 사이에서 살았고, 제대로 초대받은 인간의 본성이 응답했을 뿐이다.

더 섬세하지만 똑같이 강한 두 번째 심리 법칙도 작용한다. 한 영역에서 세운 기준은 다른 영역으로 옮겨 간다. 라우드스피커의 거짓 음을 알아보는 법을 배운 사람은 논리 속 거짓 음도 알아채기 시작한다. 정직한 음식으로 단련된 미각은 부정직한 말에 입맛을 잃는다. 자신의 감각으로 참된 품질을 경험한 이는 그 부재를 알아보는 평생의 매수할 수 없는 본능을 얻는다. 제품과 약속, 사람 속에서 모두 감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판단의 기관이라 말하며, 감각 교육을 즐거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덕 교육이라 부른다. APANI의 삶은 덕을 설교하지 않는다. 덕이 그 공간에서 가장 즐거운 선택이 되도록 마련하고, 나머지는 인간 본성에 맡긴다.

APANI의 신념 — 교리 없는 고백

모든 집은 자신이 참되다고 믿는 바를 한 쪽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다. 동의를 요구하는 교리가 아니라 직접 확인해 보라는 신념의 고백이다. 식탁과 한 병, 한 저녁과 친구만 있다면 누구나 모두 검증할 수 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 자연이 가장 위대한 장인이며, 지성과 사랑의 인도를 받는 인간의 손은 자연의 경쟁자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도구라고 믿는다. 순수함은 정련의 부재가 아니라 그 전제라고 믿는다. 참된 것만 완성될 수 있으며, 거짓된 것은 다듬을수록 더 나빠진다.

우리는 향유가 삶에 덧붙이는 사치가 아니라 잘 살아 낸 삶의 증거라고 믿는다. 천천히, 감사하며, 함께 누리는 즐거움은 도덕에서 벗어난 휴가가 아니라 도덕적 성취이며, 한 문화는 그 식탁에서 무엇을 하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 감각도 정신처럼 교육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미각과 청각, 촉각은 진실을 아는 능력이며, 감각이 깨어난 사람은 시장과 삶에서 어떤 냉소주의자보다 속이기 어렵다.

우리는 사물을 대하는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미리 연습한다고 믿는다. 경외와 인내, 정직과 배려는 사물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하나의 성품이다. 한 가정이 와인과 빵,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손님을 어떻게 대할지를 조용히 예고한다.

우리는 함께 누리는 기쁨은 배가 되고 함께하는 침묵은 사람을 이어 준다고 믿는다. 식탁과 와인 셀러, 화룻가와 리스닝 룸은 우정의 참된 의회이며, 그곳에서는 어떤 공식 회의장보다 마음의 진정한 일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의 마지막 장들을 가능하게 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 모든 것을 날마다 함께 실천하면 각각의 기쁨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된다. 서로를 대하는 공동의 방식 속에서 쌓인 애정과 존중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무르익는다. 그 사랑은 공동체와 신의, 존중과 존경을 낳는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살아 있음의 감각을 만든다. 충만한 삶의 방식, 말 그대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의 방식이다.

제삼권 — 침묵의 소리

모든 음악의 어머니, 침묵

세상의 모든 음악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한다. 침묵으로 시작한다. 침묵은 모든 음악이 그려지는 캔버스이며, 모든 빛에 의미를 주는 어둠이다. 위대한 콘서트홀은 얼마나 고요해질 수 있는지로 먼저 평가받고, 위대한 음악가는 무엇을 연주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지로 알아본다. 지휘자에게 예술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을 물으면 포르티시모가 아니라 침을 말할 것이다. 이천 명이 함께 숨 쉬는 것조차 잇는, 정지된 한순간이다. 두 음 사이의 침은 음악의 부재가 아니다. 숨을 머금은 음악이다.

자연은 어떤 콘서트홀보다 이를 잘 안다. 새벽 숲에 서면 들을 수 있다. 비어 있지 않고 충만한 침묵이다. 주의와 기대, 곧 말을 건넨 생명으로 가득하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심장박동과 호흡, 살아 있는 땅을 밟는 발걸음의 작은 타악을 다시 듣는다. 그리고 수없이 들었던 첫 새소리도 계시처럼 다가온다. 자연은 외치지 않는다. 우리가 들을 만큼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린 뒤, 어떤 녹음 스튜디오도 재현하지 못한 정밀한 세부로 보답한다. 한 나무를 스치는 바람은 다른 나무의 바람과 다르고, 잎의 종마다 고유한 목소리가 있다. 숲은 원초적인 고해상도 체험이며, 침묵은 그 재생 시스템이다. 현대 세계는 이 침묵에 전쟁을 선포했고 거의 승리했다. 모든 틈을 소음으로 채운다. 음향의 소음, 시각의 소음, 정보의 소음, 알림과 광고가 끝없이 뿜어내는 미약한 잡음까지 이어진다. 많은 이는 아무것도 동반하지 않는 단 한순간조차 견디지 못하고, 지난 시대 사람들이 빵을 찾듯 기기를 집어 든다. 우리는 이를 혼계하지 않는다. 그 대가를 관찰할 뿐이다. 침묵과 마주치지 않는 정신은 자신과도 만나지 못한다. 쉬지 못한 귀는 매일 자극에 데인 미각처럼 섬세함을 잃는다. 끊임없는 소음을 배경으로 들리는 음악은 사실 들린 것이 아니다. 그저 감지되었을 뿐이다.

APANI는 반대의 길을 택하며, 가장 먼저 그 길에 나선다. 음악이 어떻게 들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침묵이 어떻게 들려야 하는지를 묻는다. 완벽한 침묵만이 완벽한 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비주의가 아니다. 공학이자 철학이며, 이 집에서 들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 가장 검은 배경, 가장 낮은 노이즈 플로어, 가장 고요한 방, 가장 평온한 정신은 이 책이 말하는 모든 경험의 전제다. 침묵의 소리는 역설

도, 빌려 온 노래 제목도 아니다. APANI 삶의 기술적·정신적 토대다. 음악과 맛, 대화와 사랑 속의 모든 진실은 소음을 걷어 내는 데서 시작한다는 발견이다.

듣는 법을 배우다

듣기는 우리 시대가 잊은 예술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리를 듣지만 거의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귀는 늘 열려 있으나 주의는 거의 늘 다른 곳에 있다. 그러나 온 존재로 진정 귀 기울이는 능력은 인간이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 모른다. 소중한 모든 관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어떤 말보다 설득력 있게 그가 존재하며 중요하다고 전하는 일이다. 음악에 귀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삼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또 하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에 직접 말하도록 허락하는 일이다. 자연에 귀 기울이면 몸으로 우리의 근원을 기억한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것, 곧 자신의 몸과 양심, 바람이 보내는 고요한 신호를 듣는 것은 모든 정직한 삶의 시작이다.

APANI의 삶은 무엇보다 듣기의 학교이며, 교실은 이 책 곳곳에 있다. 와인은 귀 기울여 달라고 청한다. 향은 여러 장에 걸쳐 펼쳐지며, 시간을 내어 주는 이에게만 자신을 드러낸다. 조급한 사람은 위대한 한 병에서도 소박한 한 병과 같은 것만 얻는다. 그것 또한 하나의 정의다. 식탁도 귀 기울임을 청한다. 진정한 대화는 서두름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며, 정직한 음식으로 차린 식사를 천천히 나누면 어떤 회의 안건도 이르지 못한 깊이의 대화가 태어난다. 직물은 피부를 통해 들어 달라고 청하고, 아침은 하루가 외치기 전에 들어 달라고 청한다. 무엇보다 음악이 귀 기울임을 청한다. 배경도, 더 중요한 무언가의 반주도 아니다. 그 저녁만큼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당신과 음악 사이 아무것도 두지 않은 채 온전히 지금 이곳에서 들어야 한다.

이 책은 명료함을 약속했으므로 여기에는 한 가지 고백이 필요하다. 이 집의 창립자는 평생 듣기 위한 기계를 완성해 왔지만, 기계가 성취의 작은 절반에 불과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 더 큰 절반은 듣는 사람이다. 마음이 부재한 채 완벽히 재생된 걸작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온전히 집중해 듣는 소박한 시스템은 많은 것을 이룬다. 우리는 지상 최고의 재생 기기를 만들면서도 진심으로 말한다. 우리가 가장 개선했고 싶은 기기는 바로 당신이다. 이 장에 이어질 기술과 기준, 레퍼런스 설계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귀가 온전히 내맡기지 못할 모든 구실을 없애는 것이다.

APANI Audiophile — 온전히 완성된 첫 장

APANI Audiophile은 브랜드의 가장 오래된 열정이 가장 진보한 분야로 완성된 곳이다. 이는 단순하지만 가차 없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다. 음악을 창조된 그대로 들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비슷하게도, 인상적으로도, '따뜻하게'나 '흥미롭게'도 아닌, 정확히 그대로. 순진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정직하게 좇으면 수십 년을 삼킨다. 녹음된 사건과 인간의 귀 사이에 놓인 모든 것이 음악을 바꾸려 들기 때문이다. 인클로저는 울리고, 드라이버는 왜곡하며, 크로스오버는 시간을 어긋나게 하고, 방은 자신의 해석을 강요한다. 하이엔드 오디오의 역사는 대체로 이런 변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개성으로 포장해 온 역사다. APANI Audiophile은 그것을 거부해 온 역사다.

우리의 라우드스피커는 APANI라는 이름을 지닌 모든 것과 같은 정신으로 만들어진다. 최고의 천연·공학 소재와 가장 정교하고 지적인 장인정신을 결합해 최고의 경험을 추구한다. 형태는 예외 없이 기능을 따른다. 인클로저의 형상부터 가장 작은 내부 부품까지 모든 세부를 끝까지 숙고하고 애정으로 해결한다. 음악 재생에는 사소한 세부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들린다. 케이블의 공진도, 패널의 휨도, 엔지니어가 허용한 조급함도 들린다. 그래서 라우드스피커 제작은 모든 공예 가운데 가장 정직하다. 완성품은 매일 저녁 증인들 앞에서 제작자의 인격을 빠짐없이 심사한다.

Music Transformer

APANI Audiophile의 중심에는 Music Transformer라는 개념이 있으며, 그 이름은 정확히 선택되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라우드스피커는 소리를 내는 장치다. Music Transformer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저장된 신호를 한때 살아 있던 사건으로 되돌리되, 모든 에너지와 섬세함을 온전히 보존해 완벽하고 충실하게 변환하는 장치다. 음악에 무엇을 더해서도, 빼서도 안 된다. 이상적으로는 들리는 대상으로서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완벽한 Music Transformer란 그 자체는 들리지 않고 오직 음악만 들리는 것이다.

이는 말보다 훨씬 어렵고 평생을 바쳐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독자 기술을 개발했으며, 그중 둘은 공학 안에 철학을 담고 있기에 이 책에서 이름을 밝힐 가치가 있다. FIRTEC™은 일반적인 라우드스피커가 조용히 포기하는 차원, 곧 시간을 다룬다. 보통의 설계에서는 서로 다른 주파수가 극미하게 다른 순간에 라우드스피커를 떠나 연주의 시간적 진실을 흐린다. 드럼의 어택, 목소리의 첫머리, 활이 현을

무는 정확한 순간이 번진다. FIRTEC™은 시간 영역 자체에서 이를 보정해 신호의 모든 부분이 음악가가 의도한 바로 그 순간 귀에 도달하게 한다. 결과는 다른 소리라기보다 다른 차원의 현실감이다. 트랜지언트는 놀라움을 되찾고, 리듬은 장악력을 회복하며, 모호한 것은 자리를 얻는다.

DMC™는 제어의 차원을 다룬다.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앰프가 멀리서 명령을 내리고, 패시브 부품들이 이를 흐리고 소모한다. 실제로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진동판은 자신의 관성과 성향을 지닌 채 대략적으로 복종한다. DMC™는 구동 지능을 새시에 직접 배치해 패시브 구조로는 도달할 수 없는 정밀도로 진동판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음악이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 움직이고, 음악이 멈추는 정확한 순간 멈춘다. 이 기술들은 라우드스피커와 전자부, 공간이 서로 다투는 별개의 장치가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악기처럼 작동하게 한다. 결과는 일반적 의미의 ‘하이파이’가 아니다. 현존이다. 음악가들이 같은 방에서 당신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그저 그곳에 있다. 처음 듣는 이들이 사양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에 빠지는 일이 흔하다. 이는 소리에 적용된 APANI 자연법칙이며, 독자는 그 공식을 알아볼 것이다. 원형은 백 퍼센트 그대로, 부가가치는 백 퍼센트 더한다. 음악에서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경험의 모든 것은 한층 높인다. Music Transformer는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AS PURE AS NATURE INTENDED.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

단지 다른 것이 아닌 더 나은 것 — APANI Audiophile 평가 기준

하이엔드 오디오 세계에는 기묘한 언어의 병이 있다. 모든 것을 묘사하면서도 아무것도 단언하지 않는다. 제품은 음악을 서로 다르게 ‘보이싱’하고, 평론가는 와인과 날씨의 어휘를 빌리며, 구매자는 재생이 두 색 중 하나를 고르는 일처럼 취향의 문제라고 배운다. APANI는 이를 정중한 항복으로 본다. 재생은 창조가 아니다. 원형이 존재하며, 원형이 있는 곳에는 충실도라는 실재가 있다.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진실의 다른 색에는 관심이 없다. 진실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APANI Audiophile Evaluation Standard — AAES를 만들었다. 약 팔십 쪽에 걸쳐 무엇을,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측정할지, 그리고 그 측정값이 훈련된 청취자가 실제로 듣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정한 엄밀하고 문서화된 방법론이다. 이 기준은 인간 청각의 현실도 반영한다. 음량에 따라 주파수별 감도가 달라지므로 정직한 평가는 청취 레벨에도 정직해야 한다. 형용사를 증거로, 평판을 반복 가능성으로 바꾸면서도 최종 판단의 도구가 인간의 귀와 마음임을 잊지 않는다. 청취 없는 측정은 장부 정리에 불과하고, 측정 없는 청취는 일화에 그친다. 둘이 함께할 때만 지식이 된다.

이 기준의 제목은 네 단어로 된 우리의 신조다.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 이 말은 업계 전체를 가르는 선을 긋는다. 한쪽에는 끝없는 새로움이 있다. 유행의 유행, 이 평론가의 총아, 차이를 진보로 포장하는 마케팅이다. 다른 쪽에는 레퍼런스가 있다. 정확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게 규정한 기준이며, 우리 제품을 포함한 어떤 제품도 그 앞에서 시험받고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다. 우리는 주장을 검증에 노출하기 위해 기준을 공개한다. 다른 이들이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는 확인을 권한다. 검증을 청하는 집은 언제나 심사받을 준비를 갖추어야 함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 준비에는 이름이 있다. 자신감이며,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만들어진다.

QEVIKO — 길을 밝히는 이정표

이 추구의 정상에는 우리의 레퍼런스 라인이 서 있으며, 그 이름은 마케팅 부서가 정하지 않았다. 북방의 옛 언어에서 QEVIKO는 길을 찾은 여행자가 뒤따를 이들을 위해 돌 위에 돌을 쌓아 세운 이정표를 뜻한다. 민둥산과 안개, 눈 속에서 QEVIKO는 수천 년 동안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언어도 말하지 않은 채 낮선 이들을 인도했다. 이는 인간 연대의 가장 오래된 기념물 가운데 하나다. 누군가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있었고, 당신이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는 증거다. QEVIKO 라우드스피커가 지향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당신과 음악 사이에 아무것도 놓이지 않을 때 음악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이정표다. 음악가와 청취자 사이에서 그 무엇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다. 이 집이 보유한 모든 기술과 신뢰하는 모든 소재, 쏟을 수 있는 모든 장인정신의 시간이 하나의 지점에 모인 악기다. 다수를 위해서도, 새로움 자체를 위해서도 만들지 않는다. 계절마다 움직이는 이정표는 누구도 인도하지 못한다. 이들은 굳건히 서기 위해 만들어진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의 청취자에게 정상이 어디인지 규정하기 위해서다. 북방의 돌 QEVIKO처럼 제작자의 암묵적 메시지를 품는다. 깊이 생각하면 이 책 전체의 메시지가기도 하다. 길은 존재한다. 다른 이들이 이미 걸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다.

리스닝 룸 — 현대의 화롯가

그러나 시간 보정 드라이버와 측정된 진실, 레퍼런스의 정상에 이르는 기술적 깊이에도 불구하고 APANI Audiophile의 궁극은 기술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 장의 모든 기술이 잠긴 방에 홀로 앉아 장비를 감상하는 한 남자에게서 끝난다면 메마른 허영에 불과하다. 결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으며, 바로 그 결말이 핵심이다.

녹음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음악은 사람들이 서로의 곁에서 만들고 들었던 것이었다. 불가와 식탁, 수확과 결혼식, 무덤 곁에서 함께했다. 지난 한 세기를 제외한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함께한다는 뜻이었다. 음악은 공동체가 내는 소리였다. 그러므로 함께 듣는 일은 현존하는 어떤 제도보다 오래된, 가장 유구하고 강한 결속의 의식 가운데 하나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우리에게 현존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거의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소속감을 돌려준다. 녹음이라는 기적은 모든 가정에 음악을 가져왔지만, 조용히 그리고 뜻하지 않게 사람들의 동행을 앗아 갔다. APANI Audiophile은 그것을 되돌려 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APANI의 삶에서 리스닝 룸은 결코 단순한 기술 공간이 아니다. 손님이 침묵 속에서 송배해야 하는 성소가 된 집이라면 애석한 일이다. 그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현대의 화룻가다. 인간이 늘 불이 있는 곳에 모였듯 저녁이면 친구와 가족이 함께하는 곳이다. 위대한 녹음이 저녁의 배경이 아니라 그 저녁을 여는 계기가 되고, 대화가 음악 주위를 흐르며 음악이 대화를 깊게 한다. 누군가는 다른 이가 '이것을 맛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너그러움으로 '이것을 들어 보라'고 권한다. 식탁 위에서는 APANI 와인이 숨을 쉬고, 손 닿는 곳에는 좋은 음식이 있다. 어쩌면 훌륭한 시가가 연기의 느린 건축을 쌓아 올린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한다. 그리고 음악은 너무나 정직하게 재생되어 위대한 순간에는 누구도 그 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조용히 해 달라고 청할 필요도 없다. 새벽 숲에서처럼 고요가 스스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가득한 방이 한 곡의 음악 앞에서 함께 침묵하는 모습을 보라. 그러면 이장이 왜 이 제목을 지냈는지 알게 된다. 침묵의 소리는 온전한 집중의 소리다. 음악이 시작되기 전, 함께한 모두가 같은 이유로 고요해지는 순간이다. 단 하나의 음이 울리기 전 이미 본질적인 일이 일어났다. 서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귀 기울임이 된 것이다. 음악은 그것을 확인해 줄 뿐이다. 침묵에서 듣기를 지나 함께함으로. 이것이 이 장의 궤적이며, 독자는 뒤따르는 모든 장에서 음식과 와인, 직물과 불빛으로 조율된 같은 궤적을 다시 만날 것이다. 이는 철학 전체의 궤적이다.

음악이 삶에 하는 일

Nietzsche는 '음악 없는 삶은 오류일 것이다'라고 썼고, 이 집은 그것이 사실의 보고였다고 믿는다. 음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언어 가운데 하나다. 문자보다 오래되고 도시보다 오래되었으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 처음 듣는 심장박동만큼 오래되었다. 번역이 필요 없고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 세기 전 세계 한편에서 작곡된 선

울이 오늘 밤 지구 반대편의 낯선 이를 눈물짓게 한다. 이토록 자유롭게 경계를 건너고 이토록 많은 것을 품는 인간의 창조물은 없다.

음악은 그저 즐겁게 하지 않는다. 실제로 작용한다. 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혈압이 낮아지고 마음의 경보가 잦아들듯 자연이 치유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듯, 음악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이른다. 음악은 기억을 품어 몇 음만으로 한여름 전체를 되돌리고, 맥박과 호흡을 동조시켜 문자 그대로 심장을 조율한다. 논리가 소용없는 곳에서는 위로하고, 말이 너무 느린 곳에서는 축복한다. Auerbach는 ‘음악은 영혼에서 일상의 먼지를 씻어 낸다’고 말했다. 힘겨운 하루를 정직한 라우드스피커 앞에서 마친 사람이라면 그 씻김이 실제임을 안다. 살아 있는 음악이 머무는 집은 측정할 수 있고 손에 잡힐 만큼 다른 집이다. 더 고요하고 따뜻하며 감정이 스며들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자연의 모든 선물처럼 대한다. 훼손하기에는 너무 귀한 것으로 여긴다. 음악을 압축하고 착색하며 생명을 빼앗아 부주의하게 재생하는 것은 위대한 와인을 종이컵에 따르는 것과 같은 잘못이다. 음악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듣는 사람도 그러하다. 그리고 다시는 정확히 같을 수 없는 특정한 사람들이 모인 연약하고 반복 불가능한 그 저녁은 존재하는 최선을 누릴 자격이 있다.

제IV권 — APANI의 세계

APANI는 식탁과 잔, 피부 위와 리스닝 룸의 공기 속까지 여러 세계에 산다. 이는 제품 범주가 아니며, 이 책도 카탈로그처럼 다루지 않는다. 하나의 집을 이루는 방들이며, 그 집은 곧 삶이다. 이 책의 각 세계는 같은 세 질문에 답한다. 자연이 원형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APANI는 그것을 어떻게 온전히 당신에게 전하는가, 그리고 어떤 카탈로그도 묻지 않는 질문인 그것을 날마다 사용하는 일이 함께 사는 사람과 가정에 무엇을 하는가. 이 책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이것이다. 제품은 보이는 부분이고, 진정한 제품은 삶의 방식이다.

식탁 — 인간이 인간이 되는 곳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모든 장소 가운데 식탁이 으뜸이다. 의회와 사원, 학교와 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불과 음식, 둥글게 모인 얼굴들이 있었다. 인류학자들은 함께하는 식사가 가장 오래된 인간 제도라고 말한다. 어떤 도구보다 함께 요리하고 먹는 일

이 우리를 지금의 사회적 종으로 만들었다. 모든 문명이 이를 알았다. 그리스인은 식탁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위대한 종교들은 가장 깊은 의식의 중심에 식사를 두었으며, 지금껏 맺어진 모든 평화는 음식을 앞에 두고 이루어졌다. 모든 가족도 달력에서는 잊었을지 몰라도 몸으로는 여전히 안다. 식탁은 식사와 함께 하루를 소화하는 곳이다. 아이들이 말하고 듣는 법을 배우며, 건네고 따르고 내어 주고 조금 더 앉아 있는 가장 소박한 행위로 사랑을 지키는 곳이다.

많은 선물을 안겨 준 이십 세기는 무심코 이 제도와 전쟁을 벌였다. 식사를 짧게 만들고 화면으로 침묵시켰으며, 서로 다른 일정으로 사람들을 흩어 놓았다. 결정적으로 음식 자체를 비워 냈다. 현대 세계에서 먹는 많은 것이 모조품이 되었다. 실험실에서 설계한 맛, 기계에 맞춘 질감, 보존으로 대체된 신선함, 포장으로 지워진 기원이 남았다. 우리는 이를 경멸하며 말하지 않는다. 편의는 고단한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어떤 영수증에도 찍히지 않은 대가를 치렀다.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식사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고, 아무도 머물지 않는 식탁은 더 이상 인간을 길러 내지 못한다. 둥근 얼굴의 모임은 화면의 행렬로 부서졌다.

APANI Food & Beverage는 그 원을 되살리기 위해 존재하며, 그 방식은 이 집답게 간접적이다. 가족에게 함께 먹으라고 설교하지 않는다. 함께 모일 가치가 있는 음식을 만든다. 정직한 재료는 스스로 행동을 바꾼다. 이것이 이 집의 중심에 놓인 조용한 심리학이다. 토마토다운 맛이 나는 토마토는 이야깃거리가 되고, 진짜 껌질을 지닌 빵은 손을 느리게 한다. 모든 요소에 기원과 이야기가 있는 식사는 먹는 이를 손님으로, 끼니를 환대로 바꾼다. 이어지는 장들은 순수한 삶의 식료 저장고를 거닌다. 고기와 생선, 채소와 허브, 오일과 치즈, 빵과 파스타와 쌀, 소금과 후추, 커피와 차, 그리고 그 위에 왕관을 씌우는 와인까지 이어진다. 모두 상품이 아니라 철학을 날마다 실천하는 도구로 제시된다. 식탁을 참된 것들로 차리면 나머지는 식탁이 해낸다. 식탁은 이십만 년 동안 그것을 연습해 왔다.

APANI Meat — 동물과 맺은 약속

고기만큼 우리의 양심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음식은 없으며, 진실성에 이토록 분명히 보답하는 음식도 없다. APANI의 입장은 오래되면서도 근본적이다. 식탁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취한다면 먼저 그 동물에게 좋은 삶을 빙긴다. 그 빙은 협상할 수 없고, 인증서 하나로 축소할 수도 없으며, 마케팅의 입장이 아니다. 하나의 약속이다. 우리의 소는 본래 그러하도록 태어난 방식으로 탁 트인 목초지에서 살아간다. 열린 하늘 아래 신선한 풀을 먹고, 우리 속에서 자신의 속도로, 자연이 성장에 의도한 온전한 시간을 보낸다. 산업 시스템이 일상적으로 가하는 밀집과 재촉, 공포를

겪지 않는다. 공포가 잔혹해서만이 아니라 동물이 살아 낸 모든 것이 결국 접시에 오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화학적으로 분명하게 고기에 새겨지고 평온도 마찬가지다. 옛 농부들은 훗날 실험실이 확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물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맛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APANI 고기는 주방에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돌려준다. 살아 있는 풀을 먹으며 천천히 자란 동물의 고기에는 비육장이 흉내 낼 수 없는 깊은 풍미가 있다. 동물이 자신의 지혜로 고른 수많은 풀과 허브, 목초지 자체에서 온 미네랄의 복합미다. 요리사의 임무는 본래 그래야 하듯 절제가 된다. 소금, 불, 인내, 휴지면 충분하다. 훌륭한 고기를 단순하게 조리해 먹는 일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치이자 가장 정직한 사치다. 거짓된 것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탁에서 이 약속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작용한다. 고기를 드물게 먹고, 신중하게 고르며, 동물이 준 모든 것을 활용해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가족이 쓰는 어떤 말로든 감사를 표하며 온전히 존중하는 가정은 매번 APANI의 모든 가르침을 실천한다. 생명에 대한 존중, 희생에 대한 감사, 무심한 소비의 거부다. 그런 식탁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강의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배운다. 세상은 창고가 아니며, 음식에는 얼굴과 역사가 있고, 이토록 많은 것을 받은 이의 올바른 응답은 경외라는 사실이다. 이는 가장 지혜로운 조상들이 고기를 먹던 방식이다. 드물게, 감사하며, 함께, 온전히 알고 먹는 방식이다. AS PURE AS NATURE INTENDED — 그리고 그만큼 진지하다.

APANI Fish — 깨끗한 물이 준 선물

생선은 바다가 쓴 글씨이며, 위조할 수 없다. 이보다 기원을 빨리 드러내는 음식도 없다. 깨끗하고 차갑고 살아 있는 물에서 난 생선은 첫맛부터 자신을 밝힌다. 살은 단단하고 투명하며, 단맛과 짭맛이 함께 어우러져 물 자체의 풍미를 낸다. 오염되거나 고갈된 물에서 난 생선도 똑같이 빠르게 실토한다. 그래서 APANI Fish는 어획이 아니라 물에서 시작한다. 건강 상태가 기록되고, 자원이 계속 살아남을 만큼 절제해 어획하는 바다와 하천에서만 얻는다. 오늘 모든 것을 잡는 어부는 자기 아들의 뒤통을 훑치는 사람이다.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풍요롭게 물을 남기는 어부가 우리의 동반자이며, 우리는 그가 아직 일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다.

물에서 식탁까지는 속도와 저온이 전부다. 여기서 APANI는 오래된 생업에 공학적 기질을 적용한다. 어획에서 주방까지의 과정은 짧고 차갑게 유지되며 모두 기록된다. 생선은 바다가 내어준 모습 그대로 도착하고, 진정 뛰어난 모든 것처럼 거의 아

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기원의 필레를 짧게 익히고 좋은 오일과 레몬, 소금만 더하면 철학 전체를 보여 주는 한 접시가 된다. 순수함은 맛맛함이 아니다. 소음 없는 강렬함이다.

생선은 한 가정에 고유한 리듬도 가르친다. 해안 문화가 오래전부터 알았던 계절과 어획의 리듬이다. 바다는 일정표에 맞춰 내어주지 않는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내놓을 뿐이며, 지혜로운 식탁은 그에 맞춘다. 이번 주에는 이 생선, 다음 주에는 저 생선, 때로는 기다림이다. 이렇게 요리하면 가정은 자연의 달력과 다시 대화하게 된다. 그 대화는 편리함보다 가치 있다. 모든 도착을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고, 매 끼니를 조금씩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만들며, 먹는 이를 한 해의 고객이 아니라 참여자로 만든다. 잡힌 아침부터 함께하는 저녁까지, APANI Fish는 살아 있는 바다와 살아 있는 식탁을 잇는 가장 짧은 길이다.

APANI Vegetables & Herbs — 기억 속 정원

토마토가 예전에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하는 이들이 아직 살아 있다. 진보를 논할 때마다 그들의 증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산업화된 채소는 현대 식생활의 조용한 추문이다. 운송을 위해 육종되고, 일정에 맞춰 수확되며, 중립적 매질처럼 취급된 토양에서 자란다. 긴 물류 끝에 아름다운 외관과 사라진 맛을 내놓는다. 채소가 쇠퇴한 것은 자연이 실패해서가 아니다. 요구 조건에서 맛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APANI의 채소 철학은 맛을 다시 가장 앞에 놓는 데 있다.

우리의 채소와 허브는 옛 정원이 그러했고 최고의 정원이 지금도 그러하듯 재배된다. 살아 있는 토양에서, 복잡한 생명체인 흙을 먹이고 쉬게 하며 존중한다. 제철에 기른다. 채소의 달력은 불편이 아니라 조리법이기 때문이다. 균일함과 보존성보다 풍미와 개성을 기준으로 품종을 고른다. 너무 생생하고 연약하며 개별적이어서 산업의 기계가 버린 옛 품종도 포함한다. 편의가 아니라 완숙의 순간에 수확하고, 땅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흙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시간으로 잰다. 그렇게 도착하는 것은 자연이 처음 그린 채소다. 당근다운 맛을 선명히 내는 당근, 문밖에서부터 향으로 주방을 채우는 허브다. 허브에는 따로 경의를 표할 문장이 필요하다. 가장 오래된 약이자 향수이며 조미료인, 식물계의 응축된 지성이기 때문이다. 바질, 로즈메리, 타임, 세이지, 코리앤더, 민트. 각각의 이름에는 수 세기에 걸친 인간의 감사가 담겨 있으며, 정직하게 자란 허브는 잎 몇 장만으로 한 접시를 바꾼다. 살아 있는 허브가 있는 주방은 결코 완전히 일상적이지 않다. 창가에는 정원의 일부가 서 있고, 그것을 향해 손을 뻗는 요리사는 알든 모르든 만 년의 전통 속으로 손을 내민다.

이 책의 모든 곳에서 그렇듯, 여기서도 농산물이 사람을 빛낸다. 제철에 맞춰 먹는 가정은 한 해를 되찾는다. 봄은 가을과 다른 맛을 내고, 첫 아스파라거스와 마지막 토마토는 기다리고 이야기하는 작은 축제가 된다. 맛있는 채소를 아는 아이는 먹으라는 설득이 필요 없다. 설득은 맛이 실패했을 때만 필요하다. 정직한 농산물을 다루는 요리사는 모든 APANI 주방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최고의 솜씨는 얼마나 적게 손댈지를 아는 데 있다는 것이다. 기억 속 정원을 되찾는 일은 미각을 회복하는 일이며, 제III권에서 말했듯 회복된 미각은 판단 자체의 시작이다.

APANI Extra Virgin Olive Oil — 녹색의 황금

지중해의 모든 문명은 올리브 오일을 성스럽다고 불렀으며, 어느 곳도 과장하지 않았다. 오천 년 동안 이 액체는 등불을 밝히고 왕과 운동선수의 몸에 발랐으며 피부를 치유하고,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은 요리 전체의 풍미를 실어 날랐다. 올리브나무 자체가 APANI의 덕목을 가르친다. 천천히 자라고 수 세기를 살며 — 아직도 열매 맺는 어떤 나무는 로마인을 보았다 — 척박한 토양과 강한 햇빛에서 번성하고, 삶이 쉽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최고의 것을 내어준다. 오래된 올리브 숲은 농업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 가운데 하나다. 눈에 보이는 인내이며, 세대를 이은 인간의 손길이 가지치기에 기록된 모습이다. 진정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그저 갓 짠 과즙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며,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님’이 전부다. APANI 오일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가지 위에서 온전하고 건강하며 향기로웠던 올리브를 사용한다. 숙성과 생명력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 수확하고, 화학 처리도 열도 조금함도 없이 저온 추출한다. 잔에는 녹색의 황금이 흐르고, 정직한 오일이 늘 그러하듯 스스로를 밝힌다. 먼저 과실향, 이어 고귀한 쓴맛, 마지막으로 목 뒤를 자극해 처음 맛본 이는 기침하고 애호가는 미소 짓게 하는 알싸함이 온다. 그 자극은 오일의 살아 있는 심장인 폴리페놀이며, 자연이 남긴 신선함의 서명이다. 암전히 넘어가기만 하는 오일은 이미 죽은 것이다.

주방에서 이런 오일은 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현존이다. 생채소 위에서는 오천 년에 걸쳐 완성된 소스가 되고, 소금과 함께 빵에 올리면 서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요리가 된다. 팬에서는 달는 모든 풍미를 품으며 자신의 고요한 품격을 더한다. 식탁에 진정한 오일을 둔 가정은 더 단순하고 더 행복하게 먹게 된다. 오일이 단순함에 너무도 풍성히 보답하기에 복잡한 장식은 소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녹색의 모든 방울은 지중해가 북쪽에 보내는 변함없는 메시지다. 햇빛과 인내, 오래된 나무는 어떤 실험실도 가까이 이르지 못한 것을 여전히 만들며, 가장 순수한 사치는 맛보는 바로 그 주에 짠 한 열매의 즙일 수 있다는 메시지다. 녹색의 황금, AS PURE AS NATURE INTENDED.

APANI Cheese — 우유, 시간과 숙련

치즈는 저장고 전체에서 가장 경이로운 변환이다. 하루면 상하는 가장 연약한 음식인 우유가 장인의 솜씨와 인내를 거쳐 수년간 깊어지는 것으로 바뀐다. 또한 테루아가 가장 내밀하게 말하는 음식이다. 치즈는 풍경을 두 번 증류한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초원이 우유가 되어 수많은 풀과 꽃이 크림 속에서 익히고, 다시 우유가 한 덩이의 치즈가 되어 숙성고의 기후와 제작자의 손, 긴 시간의 산술로 형성된다. 하루면 걸어갈 두 계곡은 수 세기 동안 어떤 전문가도 혼동하지 않을 치즈를 만들어 왔다. 산업 치즈는 바로 이 개별성을 없애고, 그 소멸을 일관성이라 불렀다.

APANI Cheese는 산의 길을 따른다. 앞선 고기 장에서 설명했듯 야외의 살아 있는 목초지에서 고유한 리듬으로 풀을 뜯는 동물의 우유는 기술을 유산처럼 이어 온 제작자에게 간다. 전통과 안전이 만나는 곳에서는 생유를 쓰고, 첨가제 대신 시간으로 응고시키며, 그 자체가 유산인 미세기후의 숙성고에서 여러 달과 여러 해 동안 뒤집고 닦고 지켜본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개별적이듯 치즈마다 고유하게 완성된다. 아피뇌르의 예술은 각각을 이해하고, 셀러마스터가 빈티지를 다루듯 최고의 순간에 식탁으로 데려오는 데 있다.

식탁에서 치즈는 특별한 역할을 맡는다. 허기는 사라지고 즐거움과 대화만 남는 식사의 두 번째 막을 담당한다. 누구도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치즈 보드가 도착하고, 바로 그곳에서 가장 불필요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저녁의 시간이 시작된다. 천천히 자르고 손에서 손으로 건네며, 남은 와인과 맞추고 하나의 인격처럼 이야기하는 훌륭한 치즈는 APANI 철학이 바라는 지점까지 식사를 연장한다. 영양을 넘여 교감으로 이끈다. 이보다 덜 급한 음식은 없으며, 바로 그것이 치즈의 위엄이다.

APANI Bread & Pasta — 곡물 문명

빵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가공식품이자 우리가 지닌 가장 깊은 은유다. 세계 언어의 절반은 빵으로 삶 자체를 뜻하고, 동료란 말은 문자 그대로 ‘빵을 나누는 사람’에서 왔으며, 빵 냄새 없는 집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다. 만 년 동안 빵은 밀가루와 물, 소금과 야생의 시간으로 이루어진 같은 인내의 기적이었다. 그러다 이십 세기는 그것을 구십 분 만에 만드는 법을 발견했고, 역사상 가장 조용한 빈곤화 속에서 세계 대부분이 빵이 무엇인지 잊었다. 사라진 것은 낭만이 아니라 본질이었다. 빵의 맛과 소화성, 보존성은 발효에서 생기며, 발효는 서두를 수 없다. 흥내 낼 수 있을 뿐이다.

APANI Bread는 빵이 언제나 그랬듯 천천히 부풀다. 시간도 하나의 재료이며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유한 개성을 지닌 옛 곡물 품종, 배아의 생명력을 보존하는 멧돌 제분, 와인이 깊어지듯 반죽이 복합미를 키우는 길고 서늘한 발효, 진짜 오븐에서 얻은 진짜 껍질. 그렇게 완성된 빵은 가정에서 다르게 살아간다. 며칠 동안 보존되며 더 좋아지고, 주방을 기억 같은 향으로 채우며, 빵과 버터, 빵과 오일, 빵과 치즈 같은 가장 단순한 행위를 다시 온전한 식사로 만든다. 손길도 느리게 한다. 좋은 빵을 서둘러 먹는 사람은 없다. 정직하게 만든 매일의 빵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민주적인 사치다.

파스타는 곡물이 낡은 남쪽의 천재성이다. 단단한 밀과 물, 장인의 솜씨로 무한한 형태와 거의 무한한 보존성을 지닌 음식을 만들고, 한 시간 안에 훌륭한 식사를 보장하는 저장고의 가장 믿음직한 약속이 되었다. 청동 다리로 뽑아 천천히 말린 진짜 파스타는 소스를 붙잡는 거친 표면과 단단한 중심을 지닌다. 상품처럼 가장한 수공예품이며, 첫 포크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APANI 주방에서 파스타는 평일의 기쁨을 말한다. 순수한 삶이 특별한 날만의 삶이 아님을 증명한다. 화요일 저녁에도 이십 분과 진짜 파스타, 참된 오일, 정원 장에서 온 무언가만 있으면 일요일과 다르지 않은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축제에서만 작동하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빵과 파스타는 평범한 날마다 철학이 출근하는 곳이다.

APANI Rice — 물의 인내

인류의 절반은 쌀로 이루어졌으며, 이보다 더 많은 풍경과 달력, 문화를 빚은 작물은 없다. 아시아의 계단식 계곡과 북부 이탈리아의 논은 문명 규모의 장인정신으로 구현된 농업이다. 여러 세대가 쌓은 석축 위로 보석 세공사의 정밀함으로 물을 이끌고, 공동체 전체가 여전히 수확을 중심으로 한 해를 꾸린다. 쌀은 이 책이 거듭 만나는 덕목에 정확히 보답한다. 인내, 물의 절제, 품종에 대한 충실함, 그리고 시간이다. 위대한 포도처럼 위대한 쌀 품종도 서두름과 획일화를 거부한다. 저마다 개성과 지역, 솥 안에서 완성될 운명이 있다.

APANI Rice는 쌀을 유산으로 여기는 재배자에게서 산지와 품종별로 고른다. 크림 한 방울 없이 고귀한 전분만으로 리소토의 부드러움을 만들고, 장인들이 숙성해 각 알이 크림이함과 씹는 맛의 역설로 익게 하는 리소토용 쌀이 있다. 솥에서 향이 선 언처럼 피어오르는 아시아의 향미 쌀도 있다. 물과 가장 밀접한 작물인 만큼 깨끗한 물에서 재배하고, 절제해 도정하며, 생명력을 온전히 보존한 채 전한다.

주방에서 쌀은 주의 깊음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다. 리소토는 나무 주걱으로

행하는 명상과도 같다. 국자를 한 번씩 더하며 십팔 분 동안 온전히 머물러야 한다. 제III권의 라우드스피커가 요구했던 것처럼 요리도 결을 떠나지 말라고 요구한다. 자리를 비울 수도, 서두를 수도 없으며, 요리한 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음식 하나로 보답한다. 현존을 가르치고 세계 절반을 먹이며, 물과 곡물과 인내를 위안으로 바꾸는 쌀은 저장고에서 가장 철학적인 주식일지도 모른다.

APANI Salt & Pepper — 처음과 끝의 손길

저장고에서 가장 짧은 장이 다른 모든 장을 다스린다. 소금과 후추는 요리의 문장 부호이기 때문이다. 모든 조리법을 마무리하며, 그 품질은 한입마다 읽힌다. 문명의 역사는 이 둘로 쓸 수 있다. 소금은 최초로 보존된 부엌고 병사의 급료로 지급되었으며 제국들이 차지하려 싸웠다. 후추는 선단을 출항시키고 현대 세계의 지도를 그린 향신료였다. 이제 둘 다 가장 값싼 뒷생각처럼 취급된다는 사실은 이 책이 맞서려는 시대를 보여 주는 작은 우화다.

APANI Salt는 제조하지 않고 거둔다. 문자보다 오래된 방식으로 깨끗한 바닷물에서 끓여 모은 소금이며, 정제가 걸어 내는 미네랄의 복합미를 품는다. 질감과 기원, 개성이 있고, 마무리용 결정은 토마토나 스테이크 위에서 작은 박수처럼 바삭하다. APANI Pepper는 본래의 모습인 과실로 대한다. 단일 산지의 열매를 익었을 때 따고 세심히 말려 통째로 전한다. 후추의 영혼은 휘발성이어서 갈아 낸 뒤 몇 분만 살아 있기 때문이다. 완성된 요리 위에 식탁에서 밀로 갈아 올린 후추는 편의를 위해 만든 회색 가루와 전혀 다른 물질이다. 꽃향기와 열기와 생명력을 지닌, 되살아난 옛 사치다.

바로 가장 작은 것들이기에 철학의 가장 날카로운 핵심을 품는다. 순수함은 특별한 날만을 위한 방침이 아니다. 소금에서조차 타협하지 않는 가정은 전체를 이해한 것이다. 품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지는 하한선은 없고, 존중받기에 너무 소박한 재료도 없다. 손님은 소금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요리는 안다. 모든 것이 안다. 처음의 손길과 마지막 손길, AS PURE AS NATURE INTENDED.

APANI Coffee & Tea — 두 가지 명상

식사와 식사 사이, 인류는 두 잔의 음료로 자신과 만난다. 둘 다 흔히 허락받는 조급함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 커피와 차는 의식을 깨우는 세계의 두 위대한 합법적 의식이다. 하나는 정신을 모으고, 다른 하나는 가라앉힌다. 식물학적으로

도 경이롭다. 정확한 고도와 위도에서 난 열매와 잎이 와인 양조만큼 까다로운 기술로 변환되며, 최고의 순간에는 언어가 따라가기 힘든 복합미를 낸다.

APANI Coffee는 모든 위대한 커피가 시작되는 곳, 산지에서 출발한다. 천천히 익는 고지대의 단일 농장과 소규모 로트, 참으로 익었을 때 손으로 딴 수확물, 워시드든 내추럴이든 하나의 공예로 수행한 가공이 먼저다. 이어 로스팅이 온다. 재배자의 한 해 작업을 십이 분 안에 드러내거나 파괴하는 짧고 결정적인 예술이다. 우리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 위해 볶는다. 각 산지의 고유한 개성을 살리며, 로스팅 맛만 남기는 획일적 어둠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얻은 한 잔은 집에서도 작은 의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 갓 분쇄한 원두와 정직한 물, 서두르지 않는 이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커피가 본래 의도한 것, 카페인 전달이 아니라 하루의 첫 주의 깊은 행위로 보답한다. 제V권의 아침 장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차는 더 오래된 형제이자 더 부드러운 스승이다. 오천 년 동안 재배되었지만, 최고의 차는 여전히 같은 인내의 공식에서 나온다. 오래된 차나무, 높은 산의 다원, 숙련된 손, 평생을 바쳐도 다 알 수 없는 섬세한 가공이다. APANI는 와인을 고르듯 다원별로, 계절별로 차를 고른다. 그리고 차가 늘 진실로 그러했던 것, 곧 멈춤의 의식으로 내놓는다. 일하는 책상에서 홀로 마시는 한 잔부터 손님과 나누는 느긋한 완전한 의식까지 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커피가 정신을 모은다면 차는 풀어 준다. 둘에 익숙한 가정은 하루를 조율하는 두 악기를 갖는다. 거의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자극성 음료를 무심히 마시는 시대의 침울한 습관을, 그것을 작은 의식으로 마시는 순수한 삶의 습관으로 바꾼다. 하루 두 번, 음료로 모습을 감춘 주의 깊음이다.

APANI Wine — 인내의 걸작

이 책에 중심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와인이며, 포도나무를 품은 모든 문명은 그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와인은 한 잔에 담긴 완전한 APANI의 논리다. 자연이 준 최고의 원료, 팔천 년 동안 정련된 기술, 재료로서의 시간, 서명으로서의 장소,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완성되는 운명이다. 저장고의 모든 것 가운데 와인만큼 홀로 마실 때 의미를 잃는 것도 드물다. 와인은 나누기 위해 존재하며, 스스로 그것을 안다.

대자연은 서두르는 이에게 보물을 감춘다. 수천 년의 진화가 찾아낸 지혜로운 해법에 마음을 여는 이에게만 보여 준다. APANI Wine 프로젝트는 이렇게 태어났다. 유일한 테루아를 정밀하게 읽고, 고귀한 포도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까다로우며 정직한 Pinot Noir를 택했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표현하는 품종이다. 그리고 가장 전통적이고 엄격한 양조 기법을 철저히 유기적인 방식과 무한한 인내

로 수행했다. Pinot Noir는 포도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품종이다. 껍질이 너무 얇아 부주의했던 한 해를 숨기지 못하고, 너무 투명해 평범한 땅을 그럴듯하게 꾸미지 못한다. 다른 품종은 거의 어디서나 훌륭하게 만들 수 있지만, Pinot Noir는 오직 특정한 곳에서만 훌륭하게 자란다. 그 ‘곳’이 전부다.

유럽의 중심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와인메이커가 무리하다고 할 도전을 받아들였다. 하나의 크뤼에서 강렬하고 뚜렷이 다른 네 와인을 끌어내는 일이었다. 한 언덕의 네 표현이며, 같은 땅이 같은 태양에 건넨 네 답이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포도나무 고유의 기질과 각 구획의 형상, 그리고 돌의 목소리를 듣는 와인메이커의 예술뿐이다. 이는 테루아 원칙을 끝까지 입증하는 시도다. 장소가 참으로 말한다면, 한 장소도 충분히 세심히 읽을 때 하나 이상의 목소리로 말한다. 네 와인은 모두 엄격히 제한된 양만 생산한다. 언덕은 유한하고 우리의 기준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다. APANI 가족을 위해서는 가장 뛰어난 결과만 병에 담는다. 자연이 의도한 그대로 순수한, 독보적인 감각의 경험을 위해서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의 언덕이 와인의 세계 전부는 아니며, 테루아를 존중하는 집은 어디서든 그것을 존중한다. 우리의 소몰리에는 세계를 여행하며 맛보고, 전 세계의 위대한 와인 가운데 적고도 철저히 개인적인 셀렉션을 가지고 돌아온다. 개성과 기원, 신념을 지닌 와인이며, 끊임없는 탐구와 매수할 수 없는 미각으로 비범함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고른다. 우리는 재고를 쌓지 않고 큐레이션한다. 오직 훌륭한 음용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속물근성이 아니라 그 반대다. 훌륭한 음용을 사랑하는 이는 부가 아니라 주의 깊음으로 정의되며, 우리의 어떤 식탁에서도 세심한 초심자는 무심한 수집가보다 앞선다.

이제 병은 철학이 된다. 이 책에서 와인만큼 APANI의 덕목을 온전히 가르치는 사물은 없기 때문이다. 와인은 두 번의 인내를 요구한다. 셀러에서 보낸 세월, 그리고 잔 안에서 자신을 펼치는 고요한 시간. 위대한 한 병을 서두르는 이는 평범한 와인만을 얻게 되니, 이는 포도밭이 내리는 공정한 심판이다. 와인은 주의를 요구한다. 향은 장마다 열리며, 온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이를 읽을 수 있다. 와인은 의식에 보답한다. 신중히 마개를 열고, 디캔팅하고, 첫 잔을 손님에게 건네는 작은 예의는 소비를 하나의 특별한 순간으로 바꾼다. 또한 시간과 필멸성에 정직해지게 한다. 모든 빈티지는 다시 오지 않을 한 해이며, 결코 똑같이 모일 수 없는 사람들과 마시는 시간이다. 무엇보다 와인은 식탁에 가장 깊은 연대를 만든다. 함께 나눈 한 병은 작은 언약처럼 고르게 따라지고 함께 줄어들며, 단 하룻밤 동안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을 하나로 묶는다. 와인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기다릴 줄 안다. 마지막 잔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의 더 나은 절반을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와인은 APANI의 식탁에 왕관을 씌우며, 독자가 이미 알아차렸듯 이 책의 모든 장을 흐른다. 가장 마시기 좋은 형태로 구현된 철학이기 때문이다.

APANI 카리브해 — 태양의 두 번째 고향

삶의 철학은 두 기후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APANI에는 언제나 두 고향이 있었다. 알프스와 열대, 스위스의 호수와 카리브해의 해안이다. 북쪽의 집이 셀러의 덕목, 곧 인내와 정밀함, 와인과 인품을 익히는 길고 어두운 시간을 가르친다면, 남쪽의 집은 태양의 덕목을 가르친다. 열린 마음과 즉시성, 사계절 열매 맺는 자연의 너그러움, 그리고 온기를 쌓아두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관대함이다. 순수한 삶은 북쪽이나 남쪽만의 교리가 아니다. 양쪽 반구에서 모두 참으로 남는 것이며, 이 집의 카리브해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한다.

카리브해의 식탁은 세계의 위대한 미기록 요리 중 하나다. 궁정이 만들거나 학계가 체계화한 것이 아니라, 바다와 정원과 그날이 내어준 것만으로도 놀라운 깊이의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이 부엌에서 창조했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물에서 건진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생선에는 라임과 불이 생기를 더한다. 쌀과 콩은 겉돌임을 넘어 하나의 문명이 된다. 플랜틴은 푸른 것부터 검게 익은 단맛까지 수많은 운명을 품는다. 북쪽에는 이름조차 없는 뿌리채소, 검소함을 축제로 바꾸는 허브와 고추, 잎과 구덩이와 시간 속에서 옛 방식으로 익혀낸 고기의 느리고 연기 어린 인내가 있다. 이는 이 책이 아는 가장 명예로운 의미의 서민 음식이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존중하며, 비용이 아니라 지혜로 맛을 완성한다. APANI의 자연법을 알 필요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실천해온 방식이다. 그들은 그것을 살아냈다.

카리브해는 절제된 북쪽이 늘 잊을 위험에 놓인 사실도 가르친다. Genuss에는 의식적인 형식뿐 아니라 즉흥적인 형식도 있다는 것이다. 북쪽의 불의 시간은 계획되고, 정성껏 구성되며, 촛불 아래 열린다. 남쪽의 시간은 그저 일어난다. 갓 잡은 생선을 해변에서 함께 먹고, 누군가 기타를 들었기에 음악이 시작되며, 이웃들이 하나둘 합류하면서 식탁은 옆으로 길어진다. 아무도 기획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잊지 못할 저녁이다. 두 모습 모두 순수한 삶이며, 서로의 지나침을 바로잡는다. 의식만 아는 집은 경직되고, 즉흥성만 아는 집은 흩어진다. APANI가 두 기후에 각각 집을 둔 이유는 철학의 어느 절반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셀러와 햇빛, Spätlese와 모래 위에서 먹는 잘 익은 망고, 현악 사중주와 북소리. 자연이 약속을 지키는 모든 위도에서, AS PURE AS NATURE INTENDED.

시가 — 장인정신, 잎과 시간

불의 시간은 시가를 자신의 시계로 삼았다. 이 작은 형상만큼 APANI 철학을 깊이 품은 사물이 드물기에 시가는 독립된 장을 누릴 자격이 있다. 위대한 시가에는 농

업과 장인정신과 인내가 손 한 뼘 안에 응축되어 있다. 다른 계곡이 흉내 낼 수 없는 고유한 토양에서 와인처럼 자란 담배, 손으로 차례차례 수확되어 느린 공기 속에서 건조되고, 발효와 숙성을 거쳐 수년을 보낸 잎. 외과의사만큼 긴 수련을 거친 롤러는 오직 손끝과 판단으로 이를 말아, 한 시간 동안 고르게 타며 끝까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물건을 만든다. 어떤 기계도 거장의 손을 대신하지 못했다. 테루아, 장인정신, 시간. 독자는 이제 이 삼위일체를 안다. 시가는 잎과 연기로 구현된 팬트리의 철학이다.

시가를 즐기는 방식은 이 책의 모든 가르침을 다른 어떤 기쁨보다 엄격하게 실천하게 한다. 시가는 서두를 수 없다. 재촉하면 대가를 치른다.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다. 방치하면 꺼진다. 시가는 자신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내내 피우는 이의 온전한 현존을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가는 Genuss의 집에서 가장 엄격한 스승이다. 온전히 나눠지 않은 한 시간이 어떤 감각인지 잊은 시대에, 서두르지 않음을 강제하는 한 시간이다. 병과 마찬가지로 시가도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얻으며, 이 책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조건을 만든다. 느린 대화, 긴 침묵, 난롯가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정직함이다. 그 장인정신과 기원, 수년에 걸친 대가를 존중하며 즐길 때 시가는 가장 농축된 의식으로서의 Genuss가 된다. APANI의 집은 위대한 와인을 대하듯 시가를 기린다. 드물게, 의도적으로, 감사하며, 함께. 결코 습관이 아니라 언제나 특별한 순간으로. 모든 것은 늘 그렇듯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자신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APANI 텍스타일 — 두 번째 피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 가운데 우리가 입는 것보다 더 가까이 머무는 것은 없다. 직물은 다른 어떤 사물보다 오랜 시간 우리와 닿아 있다. 우리를 덮히고 식히며, 깨어 있을 때와 잠들 때, 첫 포대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움직임과 호흡을 함께 한다. 그 아래의 피부는 수백만 개의 감각 수용체가 살아 있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으로, 닿아 있는 모든 것과 끊임없이 대화한다. 그런데도 현대의 옷장은 놀라울 만큼 무심하게 그 대화 대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나눈다. 합성섬유 혁명은 값싼 풍요를 주는 대신 누구도 계산하지 않은 것을 빼앗았다. 살아 있는 피부에 살아 있는 소재가 닿는 매일, 매시간의 경험이다. APANI가 텍스타일을 두 번째 피부라 부르는 까닭은 옷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두 번째 피부는 AS PURE AS NATURE INTENDED여야 한다.

우리의 토대는 Merino 울이다. Merino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하나의 지성임을 알아야 한다. 진화는 수백만 년에 걸쳐, 보호받지 못한

인간이라면 견디지 못할 환경에서도 살아 있는 동물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이 섬유를 설계했다. 알프스의 겨울과 여름의 열기, 비와 바람, 생존의 냉혹한 계산을 견디게 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 실험실도 재현하지 못한 공학적 성취다. 많은 사람이 평생 울을 입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듣지 못했기에, 그 기능을 분명히 말할 가치가 있다. Merino는 몸이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식혀준다. 같은 옷, 같은 섬유가 몸의 상태를 읽고 응답한다. 땀이 되기 전 수증기를 피부에서 내보내 선제적으로 습기를 관리하며, 무게의 삼분의 일에 이르는 수분을 흡수하고도 건조하게 느껴진다. 면과 달리 젖어도 보온한다. 표면의 화학적 특성이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기에 별다른 화학 처리 없이도 며칠간 냄새를 억제한다. 조절하고, 호흡하고, 충격을 완화하며, 오래 견딘다. 해마다 새로운 기적을 길러내는 동물의 등 위에서 조용히, 재생 가능하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성을 입은 울'이라 말할 때는 정확한 뜻이 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설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수백만 년의 현장 검증을 능가할 수는 없다. 다만 이를 깊이 이해해 양털에서 피부에 이르는 동안 그 어떤 장점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이해에서 장인정신이 시작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Music Transformers를 만드는 APANI의 공학적 기질이 옷장 안으로 들어온다. 뛰어난 기능성 의류는 뛰어난 라우드스피커처럼 물리학에서 출발해 안쪽부터 설계된다. 몸은 균일하지 않다. 쉽게 과열되는 곳, 차가워지는 곳, 하루에도 수없이 굽혀지는 곳, 솔기가 고통이 되는 곳과 느껴지지 않는 곳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형이다. 우리의 의류는 그 지형을 정밀하게 그린다. 니트 밀도는 부위마다 달라진다. 온기를 잡아야 할 곳은 촘촘하게, 호흡이 가장 활발한 곳은 성글게, 움직임이 필요한 곳은 탄력 있게 짠다. 솔기는 몸이 잊을 수 있는 곳에 둔다. 평평하고 부드러우며, 접혀 진열된 제품이 아니라 움직이는 인간을 위해 설계된다. 섬유의 굵기도 목적에 맞춰 선택한다. 피부와 가장 섬세하게 대화할 곳에는 거미줄처럼 가는 등급을, 거친 산악 환경에는 더 튼튼한 게이지를 쓴다. 장식은 없다. 모든 스티치에는 이유가 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르고, 기능은 몸을 따른다. 이것이 전부이며, APANI 베이스레이어가 스키와 향해, 등정을 이어가는 긴 하루를 견딘 끝에 기능성 의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얻는 이유다.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완벽한 라우드스피커가 사라지듯 옷도 사라지고, 오직 경험만 남는다.

컬렉션은 유행이 아니라 삶을 따른다. 기능성 스키 및 스포츠 언더웨어는 Merino의 탁월함이 가장 가혹하게 시험되고 가장 깊이 체감되는 영역이다. 추위 속 하루가 피부에 닿는 소재 하나로 달라진다. 산과 물, 도로를 위한 베이스레이어가 있다. 하나의 여행가방으로 여러 기후를 건너면서도 여정의 냄새를 남기지 않는 관대한 동반자 섬유로 만든 여행용 제품도 있다. 그리고 일상을 위한 옷이 있다. 고도에서만 작동하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피부는 정상에서만 평범한 화요일에도 속한다. 서로 다른 삶, 하나의 법칙. 가장 뛰어난 천연 소재를 장인정신으로 지

성화해 움직이고 호흡하며 살아 있는 몸에 봉사하게 한다.

우리는 섬유 공예를 비용 조건이 아니라 유산으로 여기는 곳에서 생산한다. 대대로 섬유를 다뤄온 전통에 뿌리내린 공방에서 재봉사의 자부심은 모든 솔기 안에 보이지 않게 꿰매지고, 편직 장인은 우리의 셸러마스터가 빈티지를 읽듯 직물을 읽는다. 자연에서 많은 것을 얻는 집은 자연에 공개적인 감사의 빛을 진다. 그래서 우리는 APANI Pure Earth Awards를 제정했다. 천연 생산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건강을 지키는 이들에게 해마다 수여하는 영예다. 윤리적으로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청정 공정을 개척한 선구자들, 그들이 없었다면 '순수'와 '자연'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 마케팅에 머물렀을 조용한 영웅들을 기린다. 이 상은 우리의 십일조다. 근원을 살아 있게 지키는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바치는 인정이다.

이제 삶을 다루는 책에서 텍스타일이 긴 장을 차지할 자격을 주는 더 깊은 주장이 남는다. 매일 입는 두 번째 피부는 조용한 스승이 된다. APANI의 집에서 가장 고요하고 끈질긴 스승일지 모른다.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섬유로 한 계절을 보낸 사람이 플라스틱을 입으면 한 시간 안에 차이를 느낀다. 그 감각 자체가 가르침이다. 피부는 판단하는 기관이며, 주인이 미처 듣지 못한 판결을 줄곧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판결에 귀 기울이면 감각은 다른 곳으로 번진다. 차이를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음식과 소리, 공간과 사람, 말에서도 차이를 느끼기 시작한다. 감수성은 나눌 수 없다. 피부에서 깨우면 미각과 청각에도 나아가 제 역할을 한다. 이것이 APANI 삶의 방식에서 텍스타일이 맡은 장이다. 바라보는 순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순수, 첫 겹부터 바깥으로 입는 순수다. 세상과 접촉하는 바로 그 기관에 하루 종일, 날마다 닿는 거리 없는 철학이다.

APANI 코스메틱 — 돌봄의 의식

몸을 돌보는 일은 가장 오래된 자기 존중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도 여기서 시작된다. 기록을 남긴 모든 문화는 오일과 밤, 워터와 에센스의 처방을 남겼다. 인간은 몸을 가꾸는 일이 허영이 아니라 책임임을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이다. 몸은 삶 전체가 연주되는 단 하나의 악기이며, 돌봄은 그 악기를 지키는 일이다. 현대 화장품 산업은 이 오래된 소명을 물려받았지만 너무 자주 배신했다. 용기에는 약속을 채우고, 살아 있는 피부가 원한 적 없는 물질을 처방에 넣었다. APANI Cosmetics는 본래의 과제로 돌아간다. 순수한 성분, 정직한 효능, 그리고 씻고 영양을 주며 피부를 보호하는 매일의 행위를 본래 마땅했던 자리로 되돌린다. 짧고 감각적이며 진실한 하나의 의식으로.

우리의 토대는 Moringa 나무이며, 그것은 그 자리를 차지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Moringa는 자연이 빛은 가장 관대한 창조물 중 하나다. 선물이 너무나 풍부해 이를 가장 잘 아는 문화권에서는 단순히 '기적의 나무'라 부른다. 잎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놀라울 만큼 농축되어 있다. 씨앗에서 짠 오일은 식물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피부와 친화적인 오일 중 하나로, 가볍고 깊이 스며들며 피부가 실제로 알아보는 영양이 풍부하다. 현대 연구가 오랜 신뢰의 근거인 폴리페놀을 밝혀내기 훨씬 전부터 전통 의학은 수피와 수액, 뿌리와 잎, 씨앗과 꽃을 수세기 동안 활용했다. 용기 밖에서도 이 나무는 영양실조에 놓인 이들을 먹이고, 씨앗의 조용한 화학작용으로 물을 정화하며, 다른 식물이 견디기 힘든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번성한다. 역경 속 관대함을 식물로 구현한 존재다. APANI가 케어 라인의 토대가 될 단 하나의 식물을 찾았을 때,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이 하나의 특별한 나무에서 우리는 집중된 라인을 만든다. 순수를 믿는 집에는 마흔 가지 제품이 아니라 타협 없이 만든 몇 가지 올바른 제품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클렌저는 피부 고유의 지성을 빼앗지 않으면서 정화한다. 마스크와 모이스처라이저는 피부가 깊이 마시게 한 뒤 스스로 물러난다. 샴푸와 컨디셔너, 트리트먼트는 힘과 윤기의 겉모습을 덧씌우는 대신 모발 본연의 힘과 빛을 되돌린다. 얼굴과 입술, 눈을 위한 엘릭서에서는 다른 실험실이 합성 화학에 맡긴 일을 Moringa 오일과 잎 추출물이 해낸다. 모든 제품은 온전히 자연 유래이며, 원산지에서 윤리적으로 조달되고, 살아 있는 피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제된다. 가장 친밀한 표면에 익숙한 법칙을 적용한 것이다. 자연의 선물은 하나도 잃지 않고, 장인정신으로 모두 고양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늘 그렇듯 처방은 제품의 절반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의식이며, 그 의식으로 화장품은 삶의 길잡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는다. 아침의 고요한 두 분, 밤의 두 분. 손, 따뜻한 물, 향기, 호흡.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하루에서 가장 믿을 만한 명상이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날도 두 번의 작은 주의 의식으로 앞뒤를 감싼다. 그 시간 동안 APANI의 삶의 방식은 가장 작은 무대에서 실천된다. 서두름 대신 주의, 화학 대신 자연, 습관 대신 돌봄을 택한다. 그리고 제3권 가 약속했듯 그 실천은 다른 삶으로 옮겨간다. 매일을 의식적인 돌봄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사람은 그 사이를 무심히 살 수 없다. 손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깨우라'고 말하며 정확히 그 뜻을 전한다.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이 마침내 드러날 순수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채소와 섬유, 음악의 한 음이 그러하듯 인간의 얼굴도 같다. 덧칠하기보다 존중받은 자연의 원형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불의 시간 — Genuss

정직하게 옮길 수 없는 독일어 단어가 하나 있다. 이 책은 프롤로그부터 그 주위를 맴돌아왔다. Genuss. 사전은 이를 '쾌락'이나 '즐거움'이라 풀이하지만 핵심을 놓친다. Genuss는 뛰어난 것을 모든 감각을 깨운 채, 의식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감사하며 음미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비워두고, 가능하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한다. 쾌락은 우연할 수 있고 즐거움은 무심할 수 있지만, Genuss는 성취다. 좋은 대상, 훈련된 감각, 나눠지 않은 주의, 비워둔 한 시간이 필요하다. 곧 이 책이 장마다 쌓아온 모든 것을 요구한다. Genuss는 APANI 삶의 방식에 씌워진 왕관이며, 그 왕관에는 고유한 시간이 있다. 우리는 이를 불의 시간이라 부른다.

그 시간은 끝에 찾아온다. 좋은 하루, 좋은 식사, 좋은 한 주의 끝이다. 식탁은 제 역할을 마쳤고 접시는 치워졌다. 저녁을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말없이 서로 확인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난롯가나 테라스, 혹은 제II권이 현대의 화로라 부른 리스닝 룸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리고 불의 시간이 시작된다. 음악은 이 책이 묘사한 방식으로 정직하게 흐른다. 침묵을 품을 만큼 현존하고, 위대한 악절에서 대화가 저절로 맺을 만큼 진실하다. 더 깊은 와인 한 병이 열려 있거나, 연기와 꿀의 향을 품고 어두운 잔 속에서 바로 이 저녁을 수년간 기다려온 오래된 위스키가 놓인다. 어쩌면 훌륭한 시가 하나가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타오른다. 시가는 이 시간의 자연스러운 시계이기에 존중을 담은 한 문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잎과 세월로 빚어진 이 물건은 자신의 속도를 정하며, 서두르면 망가지고, 느린 연기의 구조로 현대 세계가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재화를 재어낸다. 끊기지 않은 한 시간이다. 이 장면에는 다급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선택되어 있다.

그렇게 강제된 호사로운 느낌 속에서 드문 일이 일어난다. 이 모든 준비가 존재한 이유다.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침묵을 품은 대화, 어떤 의제도 예정하지 못한 주제에 이르는 대화, 사람들이 마침내 오래 품고 있던 것을 말하는 대화다. 혹은 그 고귀한 쌍둥이인 편안한 공동의 침묵이 찾아온다. 더 이상 서로에게 자신을 연기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같은 음악과 같은 불빛, 같은 충만함 안에 함께 앉아 있는 침묵이다. 머리에 희끗함이 내려앉은 누구에게든 인생 최고의 시간을 물어보라. 놀라울 만큼 많은 이들이 서로 다른 말로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할 것이다.

불의 시간은 APANI의 모든 세계가 한 방에 모이는 순간이다. 식탁의 마지막 선물, 포도나무가 낳은 최고의 병, 두 번째 피부의 편안함, 의식의 평온, Music Transformer의 현존,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의 침묵이 함께한다. 참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다. 온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그러면 현대 세계가 아는 가장 희귀한 사치를 돌려준다. 스스로 온전히 살아낸 시간, 스스로 온전히 선택한 사람들과의 시간이다. 이

것이 Genuss다. 순수한 삶이 가장 따뜻해지는 시간이다. 그 불빛 속에 앉아본 사람은 제V권이 한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해왔는지 이미 안다. 사랑을 향해왔다.

제V권 — 삶을 이끄는 길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준비였다. 하나의 철학이 펼쳐졌고, 순수한 것들의 세계를 지나왔으며, 매 여정마다 같은 명제가 조용히 되풀이되었다. 제품은 도구이고, 삶의 방식이 곧 음악이라는 명제다. 이제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할 때다. 이 마지막 책은 식료품 저장고와 리스닝 룸을 나와 삶의 나날로 들어간다. 아침과 일하는 시간, 우정과 사랑, 가족과 환대, 힘겨운 시절과 생의 만년을 향한다. 이는 규율이 아니라 길잡이로 쓰였다. 울타리가 아닌 QEVIKO다. 자신의 삶이 확인해 주는 것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자신의 식탁에서 시험하라. 순수한 삶은 처방할 수 없다. 그 길을 걷는 이들이 함께 걷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아침 — 하루를 세우는 법

하루하루는 작은 생애이며, 아침은 그 유년기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이후의 모든 것을 빛낸다. 현대인의 아침은 대개 기습과 같다. 알람이 울리고, 온전히 첫 숨을 쉬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보며, 자신의 정신이 채 모이기 전에 세상의 소음을 들인다. 커피는 앉아 의식처럼 음미하는 대신 서서 연료처럼 삼킨다. 서두름 위에 세운 하루는 끝까지 서두르기 쉽고, 첫 삼십 분에 정해진 기조는 놀라울 만큼 오래 지속된다. APANI의 아침은 다르게 세워지며, 필요한 것은 거의 오직 의지뿐이다.

첫째, 소음보다 침묵이 먼저다. 세상의 요구는 이십 분 뒤에도 그대로지만, 화면에 내어준 자신의 명료함은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첫 시간을 호흡과 빛, 깨어나는 몸에 내어주는 사람은 허둥대지 않고 중심을 잡은 채 세상을 맞는다. 둘째, 관념보다 감각이 먼저다. 화장품 장에서 말한 아침의 돌봄 의식, 곧 물과 향기와 손길에 마음을 두는 이 분과, 마땅한 작은 전례에 따라 정성껏 준비해 앉아서 마시는 첫 정직한 커피나 차는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하루가 시작되며 행하는 첫 주의의 행위다. 한번 깨어난 주의력은 지속되기 마련이다. 셋째, 밀려드는 홍수보다 한 가지 참된 것이 먼저다. 한 쪽의 독서, 몇 분간 온전히 듣는 음악, 실제 하늘 아래의 짧은 산책처럼 몸과 마음이 누구의 것인지 일깨우는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좋다. 이렇게

세운 아침에는 느긋한 삼십 분이면 충분하며, 그 보답은 전혀 다른 하루다. 같은 회의와 같은 어려움도 더 평온한 사람이 맞는다. 하루는 주가 되고, 주는 삶이 된다. 아침을 새롭게 한 사람은 조용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한 셈이다.

일과 장인정신 — 잘 해낸다는 존엄

일을 말하지 않는 삶의 지침은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을 외면한 것이다. 일에 관한 APANI의 가르침은 이 책의 모든 페이지에 등장한 오래된 한 단어, 장인정신에 담겨 있다. 장인정신은 내면의 기준에 따라 행하는 일이다. 고객이 알아보거나 감독자가 지켜보기 때문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잘 해내는 것이다. 재봉사의 보이지 않는 솔기, 와인메이커가 폐기한 배럴, 구매자는 결코 보지 못할 부품을 열 번째로 수정하는 엔지니어가 그러하다. 장인정신은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자세이므로 세상의 모든 직업에서 가능하다. 회계사와 간호사, 교사와 요리사 모두 장인으로 일할 수 있으며, 누구나 그런 동료로 알고 있다.

장인의 자세가 주는 보상은 너무도 커서 세상이 이를 비밀처럼 감추는 일이 놀라울 정도다. 장인은 지루할 틈이 없다. 기준에는 완전한 도달이 없기 때문이다. 일 자체가 스승이 되고, 매일 어제보다 한 가지를 더 잘할 가능성이 열린다. 두 번째 기동인 성장이 노동의 시간으로 옮겨온 것이다. 장인은 모욕당하기 어렵다. 그의 존엄은 관객이 아니라 일에 뿌리내리기 때문이다. 칭찬은 그를 기쁘게 하지만 외면은 그를 파산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장인은 결국 필연적으로 신뢰받는다.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평판은 오직 품질뿐이기 때문이다. 수십 년에 걸친 경력을 지켜본 사람은 안다. 요란한 최적화의 대가들은 정체되고, 조용한 장인들이 마침내 이어받는다.

두 가지 APANI 원칙이 이 가르침을 완성한다. 대상에는 엄격하고 사람에게는 따뜻하라. 일은 가차 없이 판단하되 사람은 악의 없이 대하고, 둘을 결코 혼동하지 말라. 이를 거꾸로 행하는 작업장은 나쁜 결과와 불행한 일꾼을 함께 낳는다. 또한 긴 시간을 내다보라. 자신보다 오래 남을 것을 만들고, 아는 것을 가르치며, 훗날 다른 이들이 그 와인을 마실 직업의 포도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행하는 일은 삶을 치르는 대가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기쁨이 된다. 매일 성품을 단련하고 능력을 키우며, 자신의 손으로 세상에 답하는 자리다. 순수한 삶은 일이 끝날 때 시작되지 않는다. 순수한 삶의 절반은 순수한 일이다.

우정 — 스스로 선택한 가족

모든 사랑 가운데 우정은 가장 자유롭다. 혈연이 강제하지 않고 법이 계약하지 않으며, 서로를 알아보는 마음과 거듭되는 선택만으로 이어진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기에 오히려 가장 존중 깊은 사랑이다. 친구란 아무 빛도 지지 않았으면서 계속해서 나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고대인들은 우정을 인간 삶의 가장 귀한 선 가운데 하나로 꼽았고, 낭만적 사랑보다 더 세심하게 논했다. 친구라는 말을 클릭 한 번의 관계로 희석한 현대 세계도 그들을 반박하지 못했다. 진정한 우정을 더 희귀하게, 따라서 더 소중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처럼 우정에도 조건이 있으며, 이제 독자는 알아차리겠지만 APANI의 삶은 조용히 그 조건에 맞추어져 있다. 우정에는 반복이 필요하다. 강렬함보다 규칙성, 늘 정해진 저녁 식사와 되풀이되는 만남, 바쁜 시기에도 살아남는 의식이 필요하다. 우정에는 현존이 필요하다. 친구는 나란히 딛 데 정신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 함께 주의를 기울일 때 맺어지고 지켜진다. 진실한 한 저녁은 일 년 치 메시지보다 무겁다. 우정에는 무대도 필요하다. 함께 둘러앉을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식탁과 병, 난롯가와 리스닝 룸이 바로 그것이다. 우정의 오래된 무대를 되살려 참된 것들로 차린 공간이다. 양방향의 정직함도 필요하다. 칭찬만 하는 친구는 관객이고 비판만 하는 친구는 재판관이다. 우정은 와인과 음식처럼 명료함과 온기를 함께 내어놓는 곳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 책이 모든 것을 돌보듯 충성과 긴 시간으로 우정을 가꾸라. 달력의 침식 앞에서도 정기적인 의식을 신성하게 지켜라. 어려운 말은 일찍,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하라. 시샘의 작은 그림자 없이 친구의 승리를 기뻐하라. 세 번째 기동인 인정을 아낌없이 건네는 일이다. 잘못의 크기에 맞게 용서하고, 좋은 기억은 넉넉히 품으며, 멀어지거나 다툼 뒤에도 돌아가라. 언제나 돌아가라. 충성은 기억을 지닌 사랑이기 때문이다. 오랜 친구가 많은 사람은 위조하거나 물려받거나 살 수 없는 유일한 통화로 부유하다. 그것은 거듭 서로를 선택해 온 세월이다. 그런 부는 포도원을 일구듯 천천히, 성실하게, 어떤 날씨에도 쌓인다. 모두와 연결되는 기기를 쥐고도 역사상 가장 외로운 세대가 그 어느 세대보다 이 오래된 장을 필요로 할지 모르는 이유다.

사랑과 동반자 관계 — 가장 긴 이중주

세상은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는 끝없이 소음을 만들어내지만, 오래 지속되는 동반자 관계 앞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침묵한다. 결혼을 서곡이 아니라 피날레로 여기는 듯하다. APANI의 가르침은 노래가 멎는 자리에서 시작한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자연의 선물이므로 기술이 필요 없다.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장인정신이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높은 차원의 장인정신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장인정신처럼 순수한 삶이 매일 단련하는 덕목에 정확히 보답한다. 이는 비유가 아니다. 다섯째 책의 중심 원리이며, 여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

오랜 동반자 관계에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각각이 이미 이 책 어디에 나타났는지 살펴보자. 먼저 현존이 필요하다. 리스닝 룸에서 매주 훈련하는 온전한 주의다. 배경음악처럼 절반만 주의를 받는 동반자는 배경으로 밀려나고, 무관심 속에서 원망이 자란다. 펼쳐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와인이 주는 교훈이다. 사람은 훌륭한 병처럼 여러 장에 걸쳐 열린다. 결혼한 상대는 완성된 최종 빈티지가 아니다. 서두르거나 일찍 포기하는 사람은 포도원의 정의에 따라 병 안에 담긴 것보다 적게 받는다. 매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차린 음식을 알아보고, 들인 노력을 보며, 이십 년 뒤에도 아름다움을 말해야 한다. 사랑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가정 속에서 조용히 끓주린다. 온기를 지닌 명료함도 필요하다. 어려운 대화는 일찍, 다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다섯째 기둥의 규율이다. 진정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식이 필요하다. 화면 없는 공동의 식탁, 영토처럼 지켜내는 매주의 저녁, 시작의 장소로 돌아가는 해마다의 순례가 필요하다. 사랑도 우정처럼 반복으로 살아간다. 참된 것을 함께 둘러싸는 일을 멈춘 부부에게는 곧 생활의 실무만 남는다.

두 사람이 이를 실천한다면, 곧 함께 정직하게 먹고 음악을 들으며 불 앞의 시간을 지키고, 명료하고 따뜻하게 말하며, 이 집이 훌륭한 와인이나 녹음에 요구하는 경외심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편안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 무엇도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오래가는 사랑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매일 즐겁게 연마하며, 그 훈련은 반드시 드러난다. 애정과 존중, 이 책의 서문에서 제시한 두 가지 근본 몸짓은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이며, 더 깊은 것으로 익어가는 모습 또한 여기에서 가장 선명하다. 이렇게 이어가는 동반자 관계는 수십 년에 걸쳐 두 삶의 걸작이 된다. 가장 긴 이중주이면서도 여전히 나아지는 작품이다. 그들이 이루는 가정은 APANI의 집에서 가장 먼저이자 가장 중요한 방이 된다. 순수한 삶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그저 날마다 살아내는 곳이다.

가족과 세대를 잇는 식탁

가족은 축소된 문명이다. 기원의 이야기와 고유한 언어, 의식과 조리법, 불화와 보물, 어느 구성원보다 긴 기억을 지닌다. 모든 문명처럼 가족도 식탁에서 전승되거나 사라진다. 가족의 식탁은 최초의 학교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말하고 발언권을 양보

하는 법, 맛보고 감사하는 법, 논쟁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운다. 지루함과 함께 앉아 있다가 그 너머에 대화가 있음을 발견한다. 어떤 교육과정도 이를 대신하지 못한다. 서두르지 않고 정직한 식사를 함께한 유년기는 훗날 어떤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교육이다. 그 부재로 생긴 결핍 또한 어떤 재산으로도 메울 수 없다.

그러므로 APANI의 가정은 다른 무엇에도 보이지 않는 단호함으로 가족 식탁을 중심 제도로 지킨다. 규칙은 적고 오래되었다. 식사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모두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억압이 아니라 가족이 자신과 맺은 정기적인 약속이다. 화면은 자리에 없다. 빛나며 끼어드는 것은 혼자 먹어야 한다. 음식은 정직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먹는 이들이 아는 손으로 요리한다.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돌봄이란 실제로 행하는 것임을 한 번의 수업도 없이 배운다. 모두의 말을 듣고, 필요하다면 가장 어린 이부터 듣는다. 식탁에서 아이는 자신의 말에 무게가 있음을 깨닫는다. 식탁에서 귀 기울인 부모에게는 아이가 열일곱이 된 뒤에도 말을 건넨다. 또한 식탁은 가족의 전례를 지킨다. 생일 음식과 계절의 잔치, 만들 때마다 잠시 할머니를 다시 불러오는 그분의 조리법이 이어진다.

세대를 잇는 식탁은 과거와 미래 양쪽으로 뻗는다. 현재만 먹는 가족은 스스로 아는 것보다 빈약하다. 과거를 향해서는 조리법과 병, 이야기와 물건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가장 온화한 방식으로 방 안에 데려온다. 시간이 하나의 재료라는 포도원 장의 오래된 진실은 무엇보다 가족에게 맞는다. 미래를 향해서는 젊은 이들이 이 식탁의 손님이 아니라 계승을 준비하는 상속자다. 이 책의 모든 가르침은 연설이 아니라 분위기로 그들에게 전해진다. 순수함과 인내, 음악과 환대, 눈에 보이는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에게 철학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아이는 그 안에 온전히 배어든다. 여러 해 뒤 먼 부엌에서 성장한 아이가 그 음식을 만들고, 병을 열고, 녹음을 틀면 순식간에 성당 전체가 그 주위에 다시 세워진다. 이것이 APANI가 뜻하는 유산이다. 유언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다. 재산에는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식탁에는 그럴 수 없다.

환대 — 열린 문

환대는 순수한 삶이 바깥을 향한 모습이며, 기록에 남은 가장 오래된 신성한 의무다. 모든 고대 문화는 손님을 신들 가까이에 두었고, 맞이하는 태도로 한 집을 판단했다. 그 본능은 현대의 거리감 아래에도 온전히 살아 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해 요리하며, 좋은 잔과 가장 편한 의자를 내어주는 경험은 물질적 사실을 훨씬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내가 여기에서 소중한가라는 가장 오래된 인간의 질문에 가장 오래된 긍정으로 답하기 때문이다. 환대에 관한 APANI의 가

르침은 이 책 전체를 축소하여 다른 이를 위해 연주하는 일이다. 참된 것을 내어라. 정직한 식사와 진짜 와인, 침묵할 가치가 있는 음악을 내어라. 손님은 소금이나 노이즈 플로어를 의식적으로 알아채지 못할 수 있지만, 저녁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참된 것들로 가득한 방에서는 놀라울 만큼 어김없이 참된 대화가 태어난다. 무엇보다 주의를 내어라. 자신의 식탁에 온전히 함께하며, 보여주기보다 더 많이 듣고, 말없는 손님을 알아보아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주인이 되어라. 다시 말해 인정은 가장 값싸면서도 가장 드물게 건네는 선물이다. 의식은 가볍게 유지하라. 환대는 온기이지 공연이 아니다. 손님이 움직이기 두려워하는 완벽한 식탁은 문턱에서부터 실패한 것이다. 베푸는 만큼 품위 있게 받아들여라. 손님에게도 현존과 식욕, 진솔한 대화와 서두르지 않는 작별이라는 의무가 있다. 가장 깊은 환대는 상호적이다. 두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한 저녁 동안 하나가 되기로 뜻을 모은 가정이다.

이를 실천하며 무엇이 쌓이는지 보라. 환대하는 집은 여러 삶이 만나는 중심이 된다. 우정이 시작되고 회복되며, 외로운 이가 조용히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고, 젊은 이들은 그 방식을 보고 다음으로 이어간다. 주인은 이 책의 마지막 장들이 헤아릴 통화로 보답받는다. 공동체와 충성, 그리고 스무 도시에서 자신을 위해 열리는 문이다. 그 경제학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터무니없다. 식탁 하나와 정직한 음식, 열린 병과 비워둔 저녁을 소속감과 맞바꾸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어쩌면 어디에서도 이보다 큰 수익을 내는 투자는 없다. 열린 문은 순수한 삶이 진실하다는 증거다. 철학은 집이 믿는 것이고, 환대는 집이 행하는 것이다.

고독 — 자기 자신과 함께하기

함께하는 식탁에 이토록 헌신한 책이라면 그 필수적인 반대편에도 한 장을 내어야 한다. 순수한 삶은 군중이 아니라 리듬이기 때문이다. 고독 없는 공동체는 소음으로 변질된다. 홀로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곧 뚜렷한 누구도 아니게 되어, 마지막으로 말한 이의 메아리가 된다. 이 책이 요구하는 모든 깊이, 곧 단련된 미각과 듣는 귀, 명료한 말과 흔들림 없는 판단은 혼자만의 시간에 자란다. 고독은 자아가 빛어지는 곳이고, 함께함은 그 자아가 드러나고 나누어지는 곳이다. 둘 다 필수지만, 이 시대는 첫째를 처참하게 잃었다. 홀로 있음을 없애고 단지 곁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바꾸었다. 몸은 혼자지만 정신은 붐비고, 기기는 끝없는 동행의 모조품을 공급한다. 그것이 주는 양분은 식료품 저장고의 모조품과 정확히 같다.

참된 고독은 하나의 수련이며, APANI의 하루 곳곳에는 이를 위한 도구가 심겨 있다. 제대로 세운 아침이 고독이다. 목적지도 이어폰도 없는 산책이 고독이다. 인류가 지닌 가장 오래된 사유 장치이며, 모든 세기의 위대한 정신들은 걷는 속도에서 진정

한 일을 해냈다. 한 청취자와 진실만 남는 홀로 듣는 음악의 한 시간은 가장 깊은 고독이다. 어떤 편지는 혼자 읽어야 하듯, 어떤 녹음은 때때로 혼자 들어야 한다. 장인이 몰입하는 시간은 움직이는 고독이다. 부엌조차 이를 내어준다. 리소토에 집중하는 십팔 분은 나무 주걱을 든 은수처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외로움이 아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가 아픈 것이고, 고독은 자신을 잃지 않는 기술이다.

그러니 변명 없이 고독을 실천하라. 시대는 당신을 연락할 수 없는 사람이라 부르겠지만, 실은 자신의 병을 묘사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시간을 지켜라. 이따금 지루함이 찾아오면 머물게 하라. 지루함이 늘 품고 오는 생각과 기억, 정직한 질문을 건넌 만큼 충분히 오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이 장을 책의 더 큰 논지와 이어주는 역설을 보라. 고독을 익힌 사람은 어느 식탁에서든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된다. 어딘가에 다녀온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이다. 원은 구성원들이 홀로 길러낸 것으로 채워진다. 올바르게 쓰인 고독은 공동체의 경쟁자가 아니라 그 공급자다. 포도나무는 홀로 자란다. 와인은 함께 나눈다.

몸 — 최초의 악기

APANI의 삶 전체는 몸을 통과한다. 흔히 경건한 각주로 밀려나는 이 사실은 독립된 한 장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 책의 모든 기쁨과 지각, 곧 와인이 펼쳐지는 과정과 음악의 현존, 섬유의 지성, 긴 저녁을 견디는 힘과 산의 아침은 단 한 번 주어지고 반납할 수 없는 하나의 악기로 행해진다. 제II권에서 단련한 감각도 그 안에 살며, 나이들의 장에서 맞는 늦은 수확도 그 위에서 연주된다. 맛과 현존, 향유의 철학이 맛보는 이를 소홀히 한다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셈이다. 몸은 순수한 삶을 운반하는 수단 이 아니다. 최초의 악기이며, 악기는 관리해야 한다.

다행히 그 관리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기쁨 없는 산술이 아니며, 독자는 이미 그 방법 대부분을 알고 있다. 제IV권의 방식대로 먹어라. 정직하고 제철인 것을 서두르지 않고, 되도록 사람들과 식탁에서 먹어라. 순수한 식료품 저장고의 음식은 거의 우연처럼 모든 연구소가 거둬 발견하는 식단과 같다. 자연은 자신의 음식을 먹는 이를 해치도록 설계하지 않았다. 오직 산업만이 그 일을 해냈다. 이 삶의 방식처럼 움직여라. 어떤 날씨에도 날씨를 기쁨으로 바꾸는 두 번째 피부를 입고 매일 야외에서 걸어라. 들고, 오르고, 수영하고, 스키를 타라. 몸은 고행이 아니라 사용으로 유지되며, 산과 바다는 거울로 벽을 두른 어떤 공간보다 훌륭한 체육관이다. 셀러처럼 쉬어라. 수면은 하루의 발효다. 타협할 수도 서두를 수도 없으며, 어둠 속에서 힘과 기억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술과 담배, 잔치도 이 책이 모든 것을 대하듯 누려라. 드물게, 최고로, 감사하며, 함께하라. 습관이 아니라 향유이고, 마취가 아니라 특별한

순간이어야 한다. 이렇게 돌본 몸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동반자다. 그리고 순수한 삶이 귀하게 여기는 유일한 통화로 그 관계에 보답한다. 더 많은 세월과, 해마다 더 충만한 삶이다.

소유와 참된 부 — 소유당하지 않고 소유하기

아름다운 것을 파는 집이라면 소유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은 우아한 광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정직한 말을 건넨다. 소유물은 도구이며, 도구의 가치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로 판단된다. 순수한 삶이 모든 사물에 묻는 질문은 ‘인상적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능하게 하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다. 한 병의 와인은 식탁의 약속을, 라우드스피커는 함께 모인 침묵을, 좋은 팬은 삼십 년의 식사를, 두 번째 피부는 겨울 정상에 오르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현존과 기예, 건강과 어울림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은 엄밀한 의미의 부다. 소유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얻은 사물은 의상일 뿐이다. 이 시대의 옷장은 저마다 차려입느라 바쁜 관객 앞에서 단 한 번 입힌 의상으로 가득하다.

이 하나의 기준에서 APANI의 소유 철학 전체가 이어진다. 적게 소유하되 참된 것을 소유하라. 진정한 도구 쉼 가지로 이루어진 집은 사물 오백 가지를 쌓아 둔 창고보다 오래가고, 더 많이 쓰이며, 더 큰 기쁨을 준다. 그리고 이는 팔십억 명의 허영을 감당할 수 없는 지구에 대한 유일하게 온전한 답이기도 하다. 수십 년을 내다보고 사고, 세대에 걸쳐 간직하라. 순수한 사물은 소유할수록 깊어진다. 팬에는 길이 들고, 울은 부드러워지며, 와인은 무르익고, 라우드스피커는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 반면 거짓된 사물은 상자를 여는 순간 절정에 이른다. 가진 것을 돌보라. 사물을 보살피는 일은 존중의 일상적 의식이며, 기름칠하고 기우고 닦는 집은 제V권에서 거듭 만난 덕목을 매일 연습한다. 그리고 언제나 안장에는 느슨하게 앉아라. 모든 소유의 마지막 시험은 그것을 잃고도 여전히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가이다. 재고에 소유된 소유자는 도구와 연주자의 자리를 뒤바꾼 사람이다.

참된 부는 이 책이 기대는 모든 전통이 한 치의 예외 없이 만나는 지점이며, 이미 제V권의 다른 장들에서 헤아려졌다. 단련된 감각, 움직이는 몸, 오래된 우정, 긴 사랑, 세대가 함께하는 식탁, 열린 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 있음의 감각이다. 소유물은 이 모든 것을 섬길 수 있지만 어느 하나도 대신할 수 없다. 참된 식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상판이 맨 널빤지여도 여전히 부유할 사람이다. 그리고 APANI의 모임에서 누리는 믿음직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대개 바로 그 사람이 잔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연 — 일상을 넘어서는 날들

매일의 식탁은 삶을 지키고, 향연은 그 삶에 관을 씌운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모든 문화는 그 차이를 알고 지켜 왔다. 평범한 날에는 꾸준한 의식을 이어 가고, 때가 오면 의도적으로, 달력에 새겨 두고, 아낌없이 일상 위로 솟아오른 날을 맞는다. 지하 저장고에서 가장 귀한 것을 꺼내고, 식탁을 끝까지 늘이며, 집과 그 둘레의 사람들에게 선언한다. 이것은 중요하며, 우리는 함께 기억한다고. 향연은 확대된 소비가 아니다. 의미를 몸으로 행하는 일이다. 공동체가 귀한 것을 기억에 새기는 방식이기에, 어린 시절은 평범한 날들이 날씨처럼 뒤섞인 뒤에도 향연을 오래 기억한다.

현대의 달력은 계절을 평평하게 만들었듯 향연도 평평하게 만들었다. 모든 날이 어중간한 축제 같고, 어느 날도 진정한 축제가 아니며, 축하하는 장소에 외주화되어 낯선 이들의 손으로 배달된다. APANI의 집은 오래된 구조를 되살린다. 그 원칙은 한 손에 꿈을 만큼 단순하다. 향연은 드물게 열어 그 자체가 의미를 갖게 하라. 음표에 침묵이 필요하듯 비범함에는 평범함이 필요하다. 삶이 허락하는 한 집에서 향연을 열어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소는 가능성을 온전히 펼친 사적인 식탁이다. 주인의 요리는 포부에 맞게 넓어지고, 저장고에서 기다린 보물은 마침내 존재 이유를 얻으며, 음악은 메뉴처럼 고른다. 레스토랑이 파는 것은 능숙함이지만 집이 주는 것은 의미다. 의식을 만들고 지켜라. 반드시 올라오는 요리, 늘 여는 한 병, 언제나 건네는 축배, 한결같이 사랑하는 손님이 앉는 자리. 반복은 사건을 제도로 만들고, 가족과 우정은 그런 제도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모든 세대를 초대하라. 향연은 삼 세대를 위한 것이며, 가장 오래된 벗 옆에 새 친구를 앉히고, 식탁이 길어 대화가 여러 고장에서 피어나는 자리다. 하나의 참된 향연이 남긴 빛은 평범한 날들의 한 해를 밝힐 수 있다. 그런 날들이 박힌 삶은 뒤돌아보면 시간이 아니라 목걸이로 기억된다. 매일의 의식이 길고 단단한 실이 되고, 그 위에 향연이 진주처럼 빛난다. 순수한 삶은 실과 진주를 모두 마련한다.

역경 — 거친 날씨 속의 순수한 삶

삶을 정직하게 안내하려면 좋은 저녁만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삶에는 거친 날씨가 닥친다. 상실과 질병, 배신과 실패, 식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음악이 멀리 들리는 계절이다. 철학의 가치는 바로 그 시절에 드러난다. APANI의 방식은 고된 세월을 아는 이들이 세웠다. 그 기원이 된 전후 세대는 다른 삶을 거의 알지 못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이 삶의 방식이 실제로 무엇을 주는지 말하려 한다. 그것은 위로를 넘어 삶을 지탱하는 구조다.

첫째, 의식이 붙는다. 일상의 형식 위에 세운 삶이 지닌 가장 깊고 실질적인 비밀이다. 의미가 잠시 무너져도 형식은 남고, 남은 형식이 우리를 나른다. 아침의 의식은 계속되고, 식탁은 차려지며, 산책은 이어지고, 무감각하게 듣는 저녁에도 음악은 흐른다. 슬픔과 위기는 미래와 과거를 허물지만, 의식은 지켜 낸 작은 약속 하나씩으로 현재를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익숙한 잔을 통해 맛이 돌아오고, 낮익은 음악의 한 구절을 통해 감정이 되살아난다. 그때 사람은 일상의 형식이 다리였으며 자신이 줄곧 그 위를 걷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문화는 언제나 이를 알았다. 애도에 의식이 따르는 까닭이다. 형식이 텅 빈 듯할수록 지켜라. 그것은 느껴지는 만큼 비어 있지 않다.

둘째, 둘레의 사람들이 붙는다. 제V권이 가꾸어 온 모든 것, 돌본 우정과 가족의 식탁과 열린 문은 처음부터 가장 믿을 만한 보험이기도 했다. 거친 날씨가 닥치면 정기적인 저녁 모임은 생명줄이 되고, 수십 년 된 친구들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며, 오랫동안 베푼 환대가 집으로 돌아온다. 좋은 계절에 공동체를 세운 사람은 나쁜 계절에도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는다. 반면 아무리 성공했어도 고립된 최적화에 몰두한 사람은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닫는다. 셋째, 자연이 붙는다. 숲과 바다, 정원과 하늘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위안이다. 무언가를 설명해서가 아니라, 광대하고 무심하며 아름답게 계속 존재하고, 그 지속이 우리의 지속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마음이 부서졌을 때 오래된 나무 아래 앉아라. 아주 오래된 조연이다. 도움을 주지 못한 적도, 더 나아진 적도 없다.

자연과 계절 — 한 해 안에서 살기

순수한 삶은 한 해의 결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간다. 현대의 안락함은 계절을 날씨로 축소했다. 일월이나 칠월이나 같은 방과 음식, 일정과 빛을 누린다. 백만 년 동안 거대한 리듬에 맞춰진 인간의 본성은 그 평탄함 속에서 조용히 고통받는다. APANI의 방식은 의도적으로 한 해를 되살린다. 그리고 이 책의 모든 세계가 그 회복을 위한 도구임이 드러난다. 식탁은 계절을 따라 먹으며 그 맛을 알고, 저장고는 세월 자체를 마신다. 두 번째 피부는 날씨를 없애는 대신 실제 날씨에 맞춰 몸을 입힌다. 리스닝 룸에도 계절이 있다. 긴 저녁에는 밝은 음악이, 일찍 찾아온 어둠에는 깊은 음악이 흐른다.

그러므로 달력과 대화하며 살아라. 지점마다 한 해의 경첩을 표시하라. 동지와 하지, 수확, 가을의 첫 불, 야외의 첫 식탁을 오래전부터 마땅히 누려 온 작은 향연으로 기념하라. 축제가 있는 한 해는 기억 속에서 그렇지 않은 한 해보다 길다. 온화한 날씨만 고르지 말고 모든 날씨 속으로 나가라. 겨울 산책, 좋은 울을 두드리는 빗방울,

불의 의미를 되살리는 추위가 필요하다. 대비 없는 안락함은 무감각으로 녹아들며, 계절은 자연이 값없이 보내는 해독제다. 삶이 허락한다면 살아 있는 무언가를 돌보라. 정원이나 몇 그루의 포도나무, 창가의 허브, 오래된 나무도 좋다. 자신의 일정이 아니라 자연의 시간에 따라 자라는 것을 돌보는 일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겸손이며 희망이다. 그리고 해마다 주의를 기울인 만큼 무엇이 돌아오는지 살펴라. 한 해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중 어느 하루에도 완전히 길을 잃지 않는다. 큰 바위가 작은 바위를 안정시킨다. 언제나 그래 왔다.

나이 듦 — 늦은 수확

문명이 지닌 지혜는 나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읽힌다. 우리 시대는 부정을 택했다. 나이를 실패로 여기고 감추고 미루며 사과한다. APANI의 집은 대신 저장고의 관점을 취하며,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책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세월과 함께 나아진다. 포도나무는 늙어서 가장 훌륭한 열매를 맺고, 와인은 깊이를 얻기까지 수십 년이 필요하다. 우정과 동반자 관계, 장인의 손과 가족의 식탁까지, 이 책의 모든 장은 늦게 가장 빛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철학 전체를 두고 인간만 예외라면 이상할 것이다. 인간은 예외가 아니다. 인간은 이 원칙의 가장 숭고한 사례다.

나이가 갓아 가는 것은 분명하며 여기서 미화하지 않겠다. 속도와 얼마간의 힘, 매끄러움, 마침내는 동행들이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아온 사람에게 나이가 주는 것은 다른 무엇도 맺을 수 없는 수확이다. 판단력은 수십 년 동안 패턴을 알아본 힘으로, 젊은 이를 지치게 하는 상황을 꿰뚫는다. 이 책이 말하는 온전한 의미의 취향은 절정에 이른 감각이다. 정직한 와인을 사십 년 마신 미각과 참된 저녁을 만 번 들은 귀처럼, 보살핀 감각은 마지막까지 정교해진다. 자유는 연기와 야망의 소음, 타인의 시선을 크게 벗어 던지고 실제로 사랑해 온 것만 남기는 일이다. 그리고 무게가 생긴다. 오랜 친구의 말, 식탁에 앉은 할머니의 존재, 창립자의 안정된 손길처럼 지위가 아니라 축적된 삶에서 오는 권위다. 이는 수여할 수 없고 오직 자라날 뿐이다.

그러므로 가르침은 포도밭의 가르침이다. 늦은 수확을 일찍 준비하라. 나이가 깊게 만들 우정과 건강, 감각과 사랑과 기예는 모두 중년에 심어진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이 빈 가을에 놀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계절이 오면 그때 주어지는 소임을 말아라. APANI의 집에서 연장자는 저장고지기다. 이야기를 지키고, 젊은 손을 가르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아는 이들이다. 삼 세대가 함께 앉은 식탁은 철학의 완성이다. 한 방 안에서 포도가 빈티지로 익어 가는 전 과정이 보인다. 그렇게 살아낸 나이는 순수한 삶의 쇠퇴가 아니다. 그것은 늦은 수확, 곧 모든 심음이 향해 온 결실이다.

제품에서 실천으로 — 비밀을 분명히 말하다

이제 이 책은 마지막 장들에 이르렀고, 첫 페이지부터 맴돌아 온 비밀을 온전한 빛 아래 말할 수 있다. APANI의 제품은 결코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천이다. 병과 빵, 섬유와 라우드스피커는 모두 바이올린과 같은 도구다. 바이올린을 소유했다고 음악가가 되지는 않는다. 날마다 연주해야 음악가가 된다. 바로 그 의미에서 순수한 것을 매일 사용하는 일은 APANI 철학을 매일 연주하는 일이다. 마침내 그 철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이 된다.

이 열쇠로 지금까지의 세계를 돌아보면 책 전체가 달리 보인다. 와인을 천천히 따르면 인내에 관해 읽은 것이 아니라 인내를 실천한 것이다. 성품이 실제로 깃드는 몸으로 행한 것이다. 정직한 재료로 요리하면 돌봄을 연습한 것이다. 살아 있는 섬유를 입으면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달력의 압박에 맞서 가족의 식탁을 차리면 우선순위를 실천한 것이다. 손님의 잔을 채우면 너그러움을, 사람들과 함께 앉아 진정으로 들으면 현존을 연습한 것이다. 현존은 이 시대에 가장 드문 수련이다. 이 행동들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함께, 여러 해 반복하면 전혀 다른 인간이 된다. 이것이 APANI의 삶이 제품의 사용을 통해 드러나는 방식이다. 그리고 분류를 세는 이들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와인과 울과 라우드스피커를 하나의 제품이라 말해 온 이유다. 실제로 하나다. 그 제품은 삶이다.

호감과 존중에서 사랑으로

이제 철학은 사물에서 사람으로 결정적인 걸음을 내딛는다. 그 작동 원리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약속해 온 모든 것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APANI 순간의 토대가 되는 두 몸짓, 호감과 존중에서 시작된다. 호감은 누군가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그의 도착을 기뻐하며, 좋은 잔을 꺼내 주는 따뜻함이다. 존중은 그가 온전히 자신일 수 있도록 내어 주는 공간이다. 그의 속도를 배려하고, 다름을 환영하며, 존엄을 당연히 여기는 태도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존중 없는 호감은 숨 막히게 하고, 호감 없는 존중은 얼어붙게 한다. 둘은 함께 인간이 마음을 여는 기후를 만든다. 여기서 기후라는 말은 정확하다.

이 책이 모든 장에서 보여 준 법칙은 이렇다. 함께 관계 맺는 공통의 방식 안에서 호감과 존중을 꾸준히 실천하면, 둘은 처음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익어 간다. 이 책의 식탁과 리스닝 룸, 불을 마주한 시간 속에서, 정직한 식사와 참된 저녁과 지켜 온 의식의 세월을 지나며, 두 몸짓은 저장고의 어둠 속 와인처럼 깊어진다. 꾸준히, 보이지 않게, 그러다 분명하게. 마침내 둘은 합보다 더 큰 것이 된다. 사람을 향한 사랑

이다. 오고 가는 기분으로서의 사랑도, 지나치게 써서 닳아 버린 말로서의 사랑도 아니다. 식탁과 음악, 일과 삶을 나누는 이들에게 굳건하고 능동적으로 베푸는, 훈련된 선의로서의 사랑이다.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포도밭이고, 호감과 존중은 포도나무이며, 사랑은 빈티지다. 이 책의 모든 빈티지처럼 그것은 제조하거나 구매하거나 재촉할 수 없다. 오직 길러 낼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며, 그것을 길러 낼 만큼 인내하는 삶의 방식에는 경쟁자가 없다.

사랑이 낳는 것

그렇게 자란 사랑은 생성한다.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세운다. 그 사랑에서 네 가지가 차례로 자라며, 앞선 것은 다음 것의 토양이 된다. 함께 모이면 APANI의 방식을 여러 해 살아온 모든 모임이 지닌 눈에 보이는 구조가 된다. 이 책은 그것들을 하나씩 만났고, 이제 삶에서 그러하듯 함께 세운다. 첫째는 공동체다. 참된 순간을 거듭 나누는 사람들은 관객이기를 멈추고 하나의 둘레가 된다. 함께한 식탁은 공동의 기억이 되고, 공동의 기억은 언어와 의식과 역사가 된다. 서로만 아는 농담, 정기적인 저녁, 누군가의 이름이 붙은 조리법이 생긴다. 공동체는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저녁이 쌓이며 이루어진다. 어떤 제도도 그것을 발급할 수 없다.

둘째는 충실함이다. 참된 순간이 풍부한 모임은 첫 어려움에 흩어지지 않는다. 다투 뒤에도, 멀어진 뒤에도, 고된 한 해가 지나도 구성원들은 돌아온다. 충실함은 기억을 지닌 사랑이며, 모임을 가족으로 바꾸는 힘이다. 수십 년을 함께한 재배자와 장인,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동반자, 사십 년 된 친구들이 그러하다. 그것은 네트워크와 집의 차이이다.

셋째는 존중이다. 이제 처음의 형식을 넘어 되돌아와 배가된다. 처음에는 건네는 몸짓이었지만, 마침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가 된다. 모든 구성원이 보이고, 들리고, 존중받으며, 서열이 현존에 자리를 내주는 모임이다. 의견이 달라도 사람 자체를 문제 삼지 않기에 품위를 잃지 않는다. 넷째는 그 정점인 경의다. 경의는 시간이 시험하고 영속함을 확인한 존중이다. 결점까지 포함해 서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상대의 가치를 안정되게 인정하는 상태다. 경의가 자리한 곳에서는 신뢰가 온전하고 말은 적으며, 배신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된다. 네 가지 가운데 가장 드물고 가장 천천히 자라며, 어디서든 나타나기만 하면 그 모임이 마침내 존재 이유에 도달했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가 된다. 공동체, 충실함, 존중, 경의. 이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은 지상의 어떤 제품도 혼자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최고의 와인도, 가장 진실한 라우드스피커도, 그 모두를 모은 것조차 홀로는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제품이 함께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

있음의 감각. 그것을 지닌 사람들은 지상의 어디서든 언어와 세대를 넘어, 참된 식탁에 앉은 지 몇 분 만에 서로를 알아본다. 그리고 세상이 파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다.

사랑으로 충만한

이렇게 원은 닫히고, 시작된 곳인 사랑에서 완결된다. APANI는 한 세대의 사랑에서 태어났다. 자연을 향한 사랑, 자유를 향한 사랑, 인간에게 합당한 사회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것은 기예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자랐다. 젊은이가 자신의 손에서 형태를 얻는 라우드스피커를 사랑하고, 와인메이커가 완고한 비탈을, 직조공이 살아 있는 섬유를, 요리사가 자신이 차린 식탁을 사랑했다. 그리고 오늘도 세계 곳곳의 APANI 식탁과 공간에서 실천되는 사랑으로 무르익는다. 따르고, 내고, 입고, 연주하며, 무엇보다 함께 나누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모든 페이지를 요약하며, 온전한 진지함과 기쁨으로 말한다. APANI의 삶은 충만하게 하며, 사랑으로 가득하다. 인간적인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에 충만하다. 감각과 정신, 몸과 마음, 홀로 맞는 아침과 사람들로 가득한 식탁, 일과 쉼, 좋은 해와 고된 해를 모두 품는다. 그리고 사랑이 그 근원이자 결실이기에 사랑으로 가득하다. 사랑은 시작의 재료이자 끝의 수확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이자 잔에 담긴 와인이다.

순수함은 목적지가 아니었다. 순수함은 길이다. 목적지는 사랑이다.

에필로그 — 초대

이 책에는 마지막 페이지가 없다. 여기서 말한 삶의 방식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내는 것이며, 독자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어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할 식탁에서, 들어갈 수 없는 방에서, 만나지 못할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된다. 그 래야 마땅하다. QEVIKO는 여행자를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세워진 자리에 머물며 길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이 아니라 초대로 끝맺는다. 실은 모든 장이 저마다의 언어로 건네 온 바로 그 초대다. 오늘 밤, 혹은 삶이 허락하는 가장 이른 때에 제V권이 말한 방식으로 아침을 세우고 어떤 하루가 자라는지 보라. 참된 것들로 진짜 식탁을 차려라. 정직한 한 병을 열고 그것이 요구하는 시간을 내어 주어라. 침묵하며 들을 가치가 있는 음악을 틀고, 그 침묵을 함께 깨뜨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라. 저녁에는 저녁 자체 외에 아무 목적도 두지 마라. 그리고 지켜보라. 이것이 실험의 전부이며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둘러앉은 얼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자 당신의 세계에서는 가장 새로운 것이다. 온전한 현존과 온기, 의미 있는 대화와 서로를 잇는 침묵. 애정과 존중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 몫을 다한다. 한 저녁은 언제나 시작일 뿐이다. 이 책이 약속해 온 모든 것, 곧 공동체와 충실함, 존중과 경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생의 감각이 비로소 시작된다.

그것이 APANIDA.

AS PURE AS NATURE INTENDED. 충만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의 방식.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책은 읽힌다.
이 책은 살아난다.**

APANI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하나, 무엇이 진실한지 다시 느끼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은 자연이 여전히 마지막 말을 건네는 곳에서 시작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탈리아 포도밭에서 온 와인 한 잔, 손으로 만 시가의 향, 음악이 시작되기 직전 방 안의 침묵 속에서. 순수한 삶을 지탱하는 다섯 기둥인 연결, 성장, 인정, 충실함, 명료함을 말한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진실을 전한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함께 나누는 순간이라는 것.

설명서도, 카탈로그도 아니다. 식탁으로, 리스닝 룸으로,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건네는 초대다. 결국 APANI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APANI가 된다.

APANI® — AS PURE AS NATURE INTENDED®